

제4회 한중관계포럼

The 4th Korean-Chinese Relations Forum

신시대로 향하는 전환기 한중관계

일시 : 2018. 5. 18(금) 09:45~18:00

장소 :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 2층 제1세미나실

주최 :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山东大学(威海)中韩关系研究中心

Center for China-Korea Relations Studies, Shandong University, Weihai

후원 :  한국연구재단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일 시 : 2018년 5월 18일 (금)

장 소 :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 2층 제1세미나실

등록 9:45~	
10:00~10:30	개회사: 류권홍(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원장) 환영사: 김도중(원광대 총장) 축 사: 赵玉璞(山东大学(威海)党工委副书记)
1. 세션 10:30~12:00	사회자: 유지원(원광대 한중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제1발표 : 《中国旧海关史料》中的近代中朝海上贸易 발 표: 刘 畅(산동대) 토 론: 김영신(원광대) 제2발표 : 对于韩中关系的未来与法古创新的小考-以民族主义和跨国主义为中心 발 표: 신현승(원광대) 토 론: 전홍석(원광대)
12:00~13:30	점 심
2. 세션 13:30~15:00	사회자: 황진수(원광대 한중통상산업연구소 소장) 제3발표 : 취약한 중국에서 '신시대 중국'으로 - 상하이 한국인의 전환기 인식 변화 발 표: 김판수(인천대) 토 론: 김주용(원광대) 제4발표 : 超越外交战略焦虑与外交走形 : 关于中韩关系的思考 발 표: 张景全(산동대) 토 론: 이민규(서울연구원)
15:00~15:30	휴 식
3. 세션 15:30~17:00	사회자: 류권홍(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원장) 제5발표 : 朝鲜半岛和平机制构建与中国的作用 발 표: 毕颖达(산동대) 토 론: 임진희(원광대) 제6발표 :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남방, 신북방 경제협력의 연계 방안 발 표: 최재덕(원광대) 토 론: 홍기석(전주대)
17:00~17:30	강 평 赵玉璞(山东大学(威海)党工委副书记)
17:30~18:00	폐회식 류권홍(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원장)

목 차

환영사	6
	김도종(원광대 총장)

1 세션

제1발표	《中国旧海关史料》中的近代中朝海上贸易	9
	刘 畅(산동대)	
제2발표	对于韩中关系的未来与法古创新的小考-以民族主义和跨国主义为中心 · 25	
	신현승(원광대)	
토론문	전홍석(원광대)	35

2 세션

제3발표	취약한 중국에서 '신시대 중국'으로 - 상하이 한국인의 전환기 인식 변화	39
	김판수(인천대)	
제4발표	超越外交战略焦虑与外交走形：关于中韩关系的思考	51
	张景全(산동대)	

3 세션

제5발표	朝鲜半岛和平机制构建与中国的作用	55
	毕颖达(산동대)	
제6발표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남방, 신북방 경제협력의 연계 방안	61
	최재덕(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소개		86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와 중국 산둥대학 중한관계연구중심이 공동주최하는 “2018년 제4회 한중관계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원광대학교를 찾아 주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성큼 다가왔고, 곧 이어 있을 북미정상회담은 그 동안 한반도의 뇌관으로 불리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은 한반도의 미래와 한중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반도가 평화의 장으로 거듭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질서의 모범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저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과 중국 산둥대학 중한관계연구중심이 각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신시대로 향하는 전환기 한중관계”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중관계를 심도있게 모색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은 2017년 11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인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한중관계연구원 산하 HK+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임ENSION(NEAD) 토대 구축: 역사, 문화 그리고 도시”를 주제로 현재 학술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는 변화무쌍한 세계 경쟁 질서에서의 새로운 발전과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산적해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장기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상해온 결과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정세의 큰 흐름에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수립은 한반도의 평화와 지속적 발전, 동아시아의 번영, 인류 공동체의 공동이

익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실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 여러분이 한중관계의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발전적 미래를 예측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발표와 토론을 기대합니다. 매년 보다 발전된 주제로 본 포럼이 성장하고 저희 원광대학교와 중국 산둥대학이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더욱 돈독한 우애를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원광대학교를 방문하신 중국 산둥대학 귀빈 여러분과 학술대회를 위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 전문가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학생 여러분에게도 많은 배움이 있기를 바라며 감사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김 도 종

《中国旧海关史料》中的近代中朝海上贸易

刘 畅

(산동대)



제4회 한중관계포럼

《中国旧海关史料》中的近代中朝海上贸易

刘 畅(산동대)

目 录

- | | |
|-------------|----------------|
| 一、前言 | 四、中朝海上贸易中的中国口岸 |
| 二、中朝海上贸易的地位 | 五、结论 |
| 三、中朝海上贸易的结构 | |

摘要：本文首次利用《中国旧海关史料》，对1883-1910年间中朝海上贸易的地位、贸易结构，以及中国各口岸的作用进行了深入考察。指出仁川与中国的上海、烟台、天津、营口四港共同组成了中朝海上贸易网络。中朝贸易虽然在中国贸易网中所占比重十分微小，但却是朝鲜国际贸易的重要组成部分。中国基本处于贸易顺差地位，绸缎和夏布是出口大宗，高丽参和生牛皮是从朝鲜进口的主要商品。在“中朝贸易四港”中上海是第一大港，烟台次之，天津和营口所占比重较少。上海的功能主要是向朝鲜转口西方商品和出口中国物资，以烟台为中心的“北方三港”主要功能则是进口朝鲜的物资。随着烟台的逐步兴起，中朝海上贸易的重心出现向北方偏移的趋势。总之，在近代转换期，中朝海上贸易的发展使朝鲜融入了中国贸易网络，并间接地对接了世界市场。

关键词：《中国旧海关史料》；中朝贸易；开港；上海；烟台；天津；营口；仁川

一、前言

19世纪后半叶是中朝关系开始由传统朝贡体制关系向近代条约体制关系转化，并进一步确立与发展近代条约体制关系的时期，两国的贸易关系也开始从传统朝贡形式向近代海上贸易形式过渡。因此研究近代转换期的中朝贸易无论是对于两国各自的近代历史，还是对于东亚关系史都有着不容忽视的学术价值。

目前中外学术界有关本课题的研究成果主要集中在以下方面：一是近代中国经济史和中韩关系史的综述类资料和研究成果，为研究本课题提供了基础资料和大量线索。²⁾二是有关

* 国家社会科学基金项目“中日韩开港与东亚贸易网络”（15CSS012）的阶段性研究成果。

1) 本文中使用的“朝鲜”和“中朝”均为历史性概念，“朝鲜”指朝鲜王朝（1392-1910），“中朝”指代清朝和朝鲜王朝。

近代朝鲜贸易史或中朝贸易的专题资料、著作和论文。其中有或多或少的近代中朝海上贸易的资料整理和学术研究，为本课题的深入研究奠定了基础。³⁾

总体而言，中韩两国学术界有关本课题的研究尚处于起步阶段。存在的问题主要表现在以下几个方面：首先，现有的资料、著作和论文从不同的层面和视角涉及了近代中朝海上贸易史，具有一定的学术价值，然而缺少有关本课题的专题研究。其次，现有的成果从整体上对近代中朝海上贸易的趋势做过简单描述，然而对中朝海上贸易的地位及特点，以及各通商口岸在中韩贸易网中的作用缺乏整体考察和深入挖掘。

为弥补上述不足，本文将通过对《中国旧海关史料》的整理与分析，探究中朝海上贸易在中朝两国贸易体系中的地位，分析贸易结构及大宗商品的流向，考察上海、烟台、天津、营口四关在中朝海上贸易网络中的作用，以期阐明近代中朝海上贸易的清晰轮廓和各节点的特征，进而深化有关近代中朝海上贸易史的研究。

本文的研究范围为从1883-1910年，1883年仁川开港打开了中朝海上贸易的窗口，有关中朝贸易的记载开始正式见诸海关统计，近代条约体系下的中朝海上贸易正式拉开帷幕。但由于海关统计方法的变化，有关各口岸的分析截至到1904年，因为此后海关不再提供各通商口岸的对朝贸易数据。

二、中朝海上贸易的地位

1842年清政府在鸦片战争中战败，8月29日清政府被迫与英国签订了中英《江宁条约》，条约规定：“广州、福州、厦门、宁波、上海等五处港口，贸易通商无碍。”⁴⁾截至1922年，英国、俄国、法国、日本、美国等国家先后依20余项不平等的条约，迫使清政府开放了79个港口。由于地理上的原因，其中的上海、烟台、天津、营口成为了清末中朝贸易的主要口岸。1876年日本迫使朝鲜与其签订了《江华岛条约》，依此条约，朝鲜的釜山被迫开港，继釜山后，元山、仁川、木浦、镇南浦、马山、城津、群山也相继开港。⁵⁾

2) 中国第二历史档案馆等，《中国旧海关史料》，京华出版社，2001；台湾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馆藏《驻韩使馆保存档案》；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清季中日韩关系史料》，泰东文化社，1972；高丽大学亚细亚问题研究所，《旧韩国外交文书》，1965-1983；滨下武志，《中国、东亚与全球经济》，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9；古田和子，《上海网络与近代东亚》，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9；Irish University Press, *Catalogue of British parliamentary papers in the Irish University Press 1000-volume series and area studies series, 1801-1900*, Irish University Press, 1977.

3) 杨昭全，《近代中朝贸易1840-1918》，《社会科学战线》，1989年第4期；韩国文献研究所，《朝鲜海关年报(1885-1893)》，亚细亚文化社，1989；金敬泰，《通商汇纂》，骊江出版社，1987；张存武，《清韩宗藩贸易》，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1978；姜珍亚，《同顺泰号：东亚华侨资本与近代朝鲜》，庆北大学出版部，2011；刘畅，《近代烟台与朝鲜的贸易》，《韩中人文研究》2012年总第36期。

4) 王铁崖，《中外旧约章汇编》，三联书店，1982年，第31页。

5) 李铉淙[韩]，《韩国开港场研究》，一潮阁，1982年，第10-11页；金容旭[韩]，《韩国开港史》，瑞文堂，

其中的仁川位于朝鲜的西海岸，与我国的山东半岛隔黄海相望，是开展中朝贸易的主要口岸，海关资料中有关中朝贸易的记载也是始于1883年的仁川开港。1883年以后，我国的上海、烟台、天津和营口与仁川间的贸易日益活跃，近代中朝海上贸易的网络逐渐形成。

表1：中朝贸易额及在中国对外贸易中所占比重（单位：海关两）

年度	从朝鲜进口	向朝鲜出口	贸易总额	百分比
1883	11,608	2,314	13,922	0.01%
1884	31,282	32,809	64,091	0.05%
1885	24,605	120,832	145,437	0.09%
1886	29,643	102,093	131,736	0.08%
1887	18,350	182,063	200,413	0.11%
1888	72,143	244,735	316,878	0.15%
1889	120,440	200,096	320,536	0.15%
1890	52,993	473,354	526,347	0.25%
1891	100,993	479,987	580,980	0.25%
1892	132,425	464,984	597,409	0.25%
1893	126,532	399,367	525,899	0.20%
1894	439,358	892,868	1,332,226	0.46%
1895	55,741	638,063	693,804	0.22%
1896	461,592	478,446	940,038	0.28%
1897	612,103	782,471	1,394,574	0.38%
1898	952,307	1,086,748	2,039,055	0.55%
1899	807,446	729,418	1,536,864	0.33%
1900	1,188,538	804,060	1,992,598	0.54%
1901	513,516	1,178,608	1,692,124	0.39%
1902	1,260,999	1,043,428	2,304,427	0.44%
1903	1,416,496	1,268,453	2,684,949	0.50%
1904	879,320	1,390,695	2,270,015	0.39%
1905	1,753,701	2,185,927	3,939,628	0.58%
1906	371,681	1,439,356	1,811,037	0.28%
1907	1,494,204	2,169,560	3,663,764	0.54%
1908	1,320,296	2,594,981	3,915,277	0.58%
1909	2,095,853	2,917,080	5,012,933	0.66%
1910	2,382,113	2,629,433	5,011,546	0.59%
总额	18,726,278	26,932,229		

数据来源：参考1883-1910年《中国旧海关史料》各年册中ANNUAL VALUE OF THE TRADE WITH EACH COUNTRY中有关朝鲜和中国贸易总额的统计，经计算制成。

备注：贸易总额=洋货（土货）进口+土货出口+土货转口之和，不包括洋货转口部分。

1976年，第5-7页。

如表1所示, 1883年仁川开港之初, 中国与朝鲜就开展了实质性的贸易往来, 但贸易额仅1万余两, 在中国的对外贸易中仅占0.01%。此后两国的贸易基本上呈增长态势, 在中日战争前, 两国间的贸易额缓慢增长到50万两左右, 在中国的对外贸易中约占0.2%。1894年清朝在中日战争中战败, 但中朝贸易较战前相比, 却出现了快速增长, 贸易额虽有所波动, 但很快于1894年突破了100万两, 在1898年突破了200万两。1910年再次突破500万两。但值得注意的是, 中朝贸易总额虽然快速增长, 但在中国对外贸易体系中所占的比重仍然较小, 占比最高的1909年也仅有0.66%, 从未超过1%。

中朝贸易总额虽然在逐年增加, 但在中国的贸易体系中所占比重仍然较小的原因主要有以下两方面: 一是由于中国开埠通商以后在东部沿海先后开放了众多的口岸, 以上海和香港为中心, 逐步形成了面向英美和日俄的全球贸易网络。而且中国物产丰富, 人口众多, 各口岸的腹地均有丰富的资源和较强的商品吸纳能力, 因此中国对外贸易的总额非常巨大。二是由于朝鲜国土面积及腹地资源等因素的限制, 朝鲜进出口商品在种类和数量上均有一定的局限性。那么, 中朝海上贸易在朝鲜对外贸易体系中的地位又如何呢?

表2: 中朝贸易额及在朝鲜对外贸易中所占比重 (单位: 美元)

年度	从中国进口	向中国出口	贸易总额	中国	日本
1885	300,989	9,479	310,468	15.1%	84.8%
1886	439,360	15,977	455,337	15.3%	84.2%
1887	732,726	18,873	751,599	20.8%	78.9%
1888	847,862	71,946	919,808	23.5%	75.7%
1889	1,085,756	109,798	1,195,554	25.9%	73.9%
1890	1,651,816	70,922	1,722,738	20.8%	79.1%
1891	2,044,449	136,464	2,180,913	25.3%	74.5%
1892	2,050,854	149,861	2,200,715	31.3%	68.4%
1893	1,905,698	134,085	2,039,783	36.6%	62.6%

数据来源: 参考1885-1893年《中国旧海关史料》各年册中的APPENDIX II COREA, PART I. ABSTRACT OF STATISTICS b-According to Countries的统计, 经计算制成。

备注: 贸易总额=洋货(土货)进口+土货出口+土货再出口, 不包括洋货转口部分。

1885-1893年中国海关对朝鲜的贸易进行了统计, 并以附录的形式附在了当年的《中国海关年报》之后, 韩国将其出版成为《朝鲜海关年报》。如表2所示, 1885年中朝贸易额仅为31万美元, 但增长迅速, 1889年时已经达到了119万美元, 并在1892年达到了220万美元, 在1893年虽略有回落, 但9年间中朝贸易的稳定增长态势仍较为明显。朝鲜的对外贸易主要在中日两国间展开, 1885-1893年间, 中国所占比重基本呈上升态势, 由15%增长至36%, 而日本所占的比重则由85%左右降至60%。

由此可见, 中国在朝鲜的对外贸易体系中仅次于日本, 是其贸易网络的重要组成部分, 并所占比重呈逐年增长态势。这主要是由于朝鲜口岸开港较晚, 且缺少直接连通英美的航

线，其直接贸易的对象国主要是日本和中国，西方工业制成品也主要是通过这两个国家的转口贸易获得的，朝鲜的对外贸易对中日的依赖较强。另外，近代中朝贸易也是传统朝贡贸易的延续，近代以来的两国贸易存在增长惯性。如朝鲜的红参、牛皮、牛骨、牛角、海鲜、海草等均是从传统贸易体系中延续过来的重要出口物资。⁶⁾

综上，仁川开港以后，中朝贸易基本上呈快速发展的趋势。但由于中国对外贸易的体量非常庞大，所以其中的中朝贸易份额显得相对较小，但在朝鲜的对外贸易体系里中国却是仅次于日本的重要存在。

三、中朝海上贸易的结构

贸易结构是指某一时期贸易的构成情况。如表1所示，在中朝海上贸易中，1883-1910年间中国的出口总额和进口总额分别是2693万和1873万，出口在双边贸易中占比59%，中国呈现顺差。这种现象在甲午中日战争以前，表现的更为明显，经计算，1885-1893年中国的出口总额和进口总额分别是267万和68万，出口在贸易中占比80%。但由于战前各年度的贸易额较低，所以进出口的巨大差额，对中朝贸易的总体趋势影响不大。

中日战争以后，这种现象发生了改变，中国的进口额开始激增，甚至在个别年度超过出口额，这主要是由于从朝鲜进口了大量的高丽参所致。如表1所示，1902年和1903年的从朝鲜进口额均超过了向朝鲜出口出口额，这两年中国从朝鲜进口高丽参的货值分别达到了102万和97万，⁷⁾在进口贸易中分别占比81%和68%。相反，由于1904年高丽参进口量下滑到70万两，⁸⁾直接导致中国的进口额跌至88万，并使中国的对朝贸易再次出现顺差。由此可见，由于中国从朝鲜进口高丽参的货值巨大，直接影响着中朝海上贸易的发展趋势，对中朝贸易结构的改变也起到了关键作用。

除高丽参外，在中朝贸易网中，生牛皮也是中国的大宗进口商品。1902年和1903年从朝鲜进口生牛皮的货值分别达10万两和21万两，⁹⁾在从朝鲜的进口贸易中分别占10%和15%。由此，高丽参和生牛皮作为中朝贸易的大宗进口商品，两者之和占比高达91%和83%。进口贸易的剩余份额则基本被海参、纸、各种染料、鱼及海产品、药材，蘑菇、毛皮、烟草、鹿角、大米、种子等10余种商品占据。由此可见，中国从朝鲜进口的大宗商品多为农牧产品和海产品，除纸张为手工业品外，其他多为未经加工的原料。

6) 李恩熙（音译），《开港期韩国贸易史研究的成果和课题》，《学林》2013年总第34集，第34页。

7) ANALYSIS OF FOREIGN TRADE-IMPORTS 1905, p.153, 载《中国旧海关史料》第42册，第155页。中国旧海关从1905年起改变统计体例，开始以大宗进出口商品为中心进行编制，1905年的海关报告统计了1902-1905年中国的大宗进出口商品情况，这是海关报告首次对大宗商品的流向进行详细统计。因此，针对大宗商品的考察只能始于1902年。

8) ANALYSIS OF FOREIGN TRADE-IMPORTS 1905, p.153, 载《中国旧海关史料》第42册，第155页。

9) ANALYSIS OF FOREIGN TRADE-IMPORTS 1905, p.161, 载《中国旧海关史料》第42册，第163页。

与进口商品相比，中国向朝鲜出口的大宗商品种类更为丰富，其中位居大宗出口商品首位的是绸缎。1902年和1903年向朝鲜出口绸缎分别为62万两和64万两，¹⁰⁾在向朝鲜出口贸易中占60%和50%；仅随其后的是夏布的出口，夏布是一种历史悠久的传统手工艺品，是以苎麻为原料编织而成的麻布。1902年和1903年分别向朝鲜出口夏布22万两和28万两，¹¹⁾在对朝出口中占21%和22%。绸缎和夏布作为中朝贸易的大宗出口商品，两者之和占比高达81%和72%。此外，纸烟、土布、纸张和芝麻也是中国对朝鲜出口的大宗商品，年均销售额基本可以达到1万两。其余的出口商品还包括棉花、水果、毛皮、甘草、药材、腌制食品、烧酒、豆类、家畜、陶瓷、服装鞋帽、烟花爆竹、头发、嫩鹿茸、水银、植物油、草辫帽、烟叶、粉条和花生等。由此可见，中国出口朝鲜的商品除农产品外，还包括了一定数量的传统手工艺品，朝鲜对中国各种产品的需求虽然较大，但单一产品的吸纳能力较为有限。

如上文所述，开埠通商以后，中朝海上贸易网络的发展促进了两国传统商品的流动。然而在中朝海上贸易中，除中国对朝鲜的直接贸易外，还有一部分转口贸易。

近代开埠通商以后，中国主要从英国、美国、日本等国家进口鸦片、棉制品、毛织物等西方的近代工业制成品，¹²⁾海关资料中将这一部分货物称为“洋货”。中国旧海关对对外贸易进行统计时，对外贸易总额是由进口贸易、土货出口和土货转口组成，其中并未包括洋货转口部分。这主要是由于转口的洋货，并非产自中国，而仅是在中国的口岸进行转口。从海外进口的洋货除被我国广阔的腹地吸纳外，还有一部分转口到了国外，其中转口朝鲜的部分如下表所示：

表3：对朝鲜洋货转口贸易及在中国洋货转口中所占比重

年度	贸易额	百分比	年度	贸易额	百分比
1883	62,521	7.8%	1897	1,529,240	18.7%
1884	33,449	4.2%	1898	1,605,458	20.4%
1885	84,548	10.9%	1899	1,406,110	18.5%
1886	109,910	8.5%	1900	1,142,400	12.5%
1887	273,615	14.8%	1901	1,808,408	24.8%
1888	300,367	19.8%	1902	2,120,465	27.2%
1889	418,317	21.0%	1903	2,316,461	29.9%
1895	803,274	10.7%	1904	2,041,471	18.9%
1896	938,383	11.5%			

数据来源：参考1883-1904年《中国旧海关史料》各年册中RE-EXPORTS OF FOREIGN GOODS TO FOREIGN COUNTRIES部分的统计制成。

备注：中国再出口总额不包括再出口香港部分 1890-1894年无数据。

10) ANALYSIS OF FOREIGN TRADE-EXPORTS 1905, p.311, 载《中国旧海关史料》第42册，第313页。

11) ANALYSIS OF FOREIGN TRADE-EXPORTS 1905, p.264, 载《中国旧海关史料》第42册，第266页。

12) [日]滨下武志，《中国近代经济史研究》，江苏人民出版社，2008年，第542-543页。

如表3所示, 1883-1904年间, 对朝鲜的洋货转口贸易在中国的洋货转口中占有一定的比重, 从1883年的7.8%到1903年的30%, 基本上呈波动增长趋势。从贸易额上分析, 中国对朝鲜的洋货转口贸易以甲午中日战争为界, 大体上可以分为两个时期, 战前贸易额缓慢增长, 1889年仅达到了41万两, 但在战后却出现了激增, 1895年增长到80万两, 并很快在1897年突破150万两, 并于1902年达到200万两。但所占比重的增幅却没有贸易额增幅明显, 这是因为中国的洋货转口贸易整体上也在快速发展所致, 而且物价上涨也是应该考虑的因素。

与表1中的中朝贸易总额相对比, 不难发现, 对朝鲜的洋货转口贸易额基本与中朝直接贸易总额持平, 且在中国贸易体系中, 对朝鲜的洋货转口贸易的地位要远高于中朝直接贸易的地位。因此, 对朝鲜的“洋货转口贸易”成为了近代中朝海上贸易的重要特点之一。

在中国的洋货对外转口贸易中, 中朝贸易能占有重要的地位主要有以下两方面的原因: 首先, 朝鲜的近代工业欠发达, 缺少西方国家的工业制成品, 对来自欧美的洋货有较强的市场需求。据海关史料载, “(1890年) 今年洋货进口者以估值计之, 则棉布类将居其半数, 朝鲜人互相购用, 而盛行畅销也。”¹³⁾其次, 由于朝鲜所处的地理位置, 很少有从欧美直达朝鲜的航线。1876-1904年东亚的航运网络主要连通的是中国、日本和俄国, 虽然很多航线也经停朝鲜的仁川和釜山等港口, 但并没有从朝鲜直达海外的航线。¹⁴⁾因此, 朝鲜并不具备与欧美进行直接贸易的优势, 相反由于上海到日本的航线多经停朝鲜港口, 使其转口贸易获得了便利。

通过对贸易结构的分析, 近代中朝海上贸易有如下几个特点: 一是在中朝直接贸易中, 中国基本处于顺差, 出口贸易占有更大的优势。二是除直接贸易外, 中国的对朝鲜的洋货转口贸易占有非常重要的地位。三是高丽参和生牛皮是中国的进口大宗商品, 绸缎和夏布则是出口大宗。

四、中朝海上贸易中的中国口岸

如上文所述, 1883年仁川的开港打开了中朝海上贸易的窗口, 中朝海上贸易兴起, 并稳步发展。那么在中朝海上贸易体系中, 中国的各主要口岸处于什么地位, 又有哪些特点呢? 各口岸在中朝贸易中所占比重如下表所示:

13) 《光绪十六年仁川港口朝洋贸易情形论畧》, 第15页。载《中国旧海关史料》, 第16册, 第272页。

14) 罗爱子[韩], 《韩国近代海运业史研究》, 国学资料院, 1998年, 第287页。

表4：各主要口岸在中朝贸易中所占的比重（1883 - 1904）

年度	上海	烟台	天津	营口	四港之和
1883	98.6%	1.4%	0.0%	0.0%	100%
1884	93.5%	4.4%	2.0%	0.0%	100%
1885	-	-	-	-	-
1886	83.8%	15.3%	0.9%	0.0%	100%
1887	83.0%	14.7%	2.3%	0.0%	100%
1888	77.4%	14.2%	3.3%	0.7%	95.6%
1889	56.3%	30.7%	4.5%	1.1%	92.6%
1890	77.9%	9.3%	10.6%	0.4%	98.2%
1891	69.5%	10.3%	14.7%	5.5%	100%
1892	73.9%	6.2%	12.9%	6.9%	100%
1893	67.0%	9.2%	16.4%	7.3%	100%
1894	65.9%	27.3%	3.8%	3.0%	100%
1895	90.4%	-	-	-	-
1896	42.6%	43.9%	7.9%	5.5%	100%
1897	46.9%	40.5%	7.6%	4.9%	100%
1898	42.7%	44.8%	7.0%	5.6%	100%
1899	44.5%	34.7%	14.5%	6.3%	100%
1900	67.0%	26.4%	4.4%	2.2%	100%
1901	59.3%	33.2%	0.0%	4.3%	96%
1902	41.7%	52.6%	1.8%	3.9%	100%
1903	52.9%	41.9%	2.1%	3.1%	100%
1904	57.1%	40.8%	0.9%	1.1%	99.9%

数据来源：参考1883-1904年《中国旧海关史料》各年册中Shanghai, Chefoo, Tientsin, Newchang部分TRADE IN FOREIGN GOODS-Imports and Re-exports-SUMMARY, TRADE IN NATIVE PRODUCE.-Imports and Re-exports-SUMMARY的数据，计算出各港的朝鲜贸易总额，再与各年册中ANNUAL VALUE OF THE TRADE WITH EACH COUNTRY中COREA部分的数据进行对比计算而成。

备注：史料中缺少1885年各港具体贸易数据，1895年也仅有上海港贸易数据；中朝贸易总额直接取自海关资料，各港比例为各港贸易额与中朝贸易总额的比值，各港贸易额为洋货（土货）进口+土货出口+土货复出口之和；个别年度四港贸易之和不足100%，其原因是存在其他口岸发生小额中朝贸易的可能。

如表4所示，上海、烟台、天津和营口四港是近代中朝海上贸易网中的重要口岸，除个别年度外，几乎囊括了所有的中朝海上贸易份额。因此，朝鲜主要是通过上海、烟台、天津和营口四港与中国进行贸易的，我们可以将这四港称为“中朝贸易四港”。

第一，上海作为中国的首批通商口岸，在与朝鲜通商之初占据了中朝海上贸易的绝对份额，在1883年就已经达到了98.6%。此后由于烟台、天津和营口三港的通商，其所占的比例基本上呈波动下降态势，最低点呈回落至1902年的41.7%。但从长时段来看，上海除个别年

度被烟台超越外，基本仍居四港之首。

另外，值得注意的是，上表中统计的数据，依海关统计方法，未包括上海对朝鲜的“洋货转口”部分，而若把这部分贸易额合并计算，上海在中朝海上贸易中的龙头地位则是“无港可及”的。上海在中朝贸易中进出口各部分所占比重如下表所示：

表5：上海的中朝贸易各部分所占比重

	进口额	出口额	土货出口	土货转口	洋货转口
不包括洋货转口	13%	87%	66%	34%	-
包括洋货转口	5%	95%	23%	12%	65%

数据来源：参考1883-1904年《中国旧海关史料》各年册,Shanghai部分TRADE IN FOREIGN GOODS-Imports and Re-exports-SUMMARY,TRADE IN NATIVE PRODUCE-Imports and Re-exports-SUMMARY部分的数据，经计算而成。

如表5所示：上海与朝鲜的贸易统计有两种类型，分别是“不包括洋货转口”的贸易和“包括洋货转口的贸易”。在第一种统计方法中，贸易由从朝鲜的进口和向朝鲜出口两部分构成，其中出口部分由土货出口和土货转口组成。土货指的是中国本土出产的商品，土货转口则指从中国其他口岸运到上海，再由上海销往朝鲜的部分。通过以上数据不难发现，上海在对朝鲜的贸易中出现明显的贸易顺差，出口朝鲜的货物总额明显高于从朝鲜进口货物的总额。而且在出口贸易中土货直接出口量要高于土货的转口量。这说明上海的对朝鲜贸易主要是以上海及其腹地资源为中心的 direct 贸易。在第二种统计方法中，加入了洋货转口，即通过上海转口到朝鲜的外国商品部分。从而使上海对朝鲜的贸易顺差进一步加剧，出口量所占比重高达95%，且洋货转口部分在出口额中占比65%，成为了最主要的出口物资。

由此可见，上海作为近代中朝海上贸易网络中的第一大港，扮演着对朝鲜出口中国商品和转口国外商品的角色，外国商品的转口是上海在中朝贸易网络中的重要特点。出现这种现象一方面是由于上海是国外商品进入中国市场的集散中心，拥有丰富的货物资源和便利的航运条件；另一方面也说明朝鲜缺少西方工业制成品和中国产品，朝鲜不仅可以通过上海获得中国商品，还可以间接地获得各种洋布在内的西方的工业制成品，从而间接地融入世界贸易市场。

第二，烟台是第二次鸦片战争以后，依《天津条约》对外通商的，其在中朝贸易中的比重仅次于上海。烟台在仁川开港之初，在中朝海上贸易中所占的比重极低，但发展较快，并在1889年达到了30.7%，但在随后的4年中出现了下滑，基本在10%以下。1894年以后，烟台在中朝海上贸易中所占的比例出现快速上升，基本维持在40%左右，甚至在1896年、1898年、1902年三次超越上海，位于四港之首。烟台在中朝贸易中进出口各部分所占比重如下表所示：

表6：烟台的中朝贸易各部分所占比重

	进口额	出口额	土货出口	土货转口	洋货转口
不包括洋货转口	81%	19%	70%	30%	-
包括洋货转口	75%	25%	48%	21%	30%

数据来源：参考1883-1904年《中国旧海关史料》各年册,CHEFOO部分TRADE IN FOREIGN GOODS-Imports and Re-exports-SUMMARY,TRADE IN NATIVE PRODUCE.-Imports and Re-exports-SUMMARY部分的数据，经计算而成。

备注：海关资料中缺少1895年的统计数据；1890年和1894年从朝鲜进口部分海关分别列出了“洋货进口”和“土货进口”，为与其他年度相一致，统计中将这两项数字合并统计，归入“进口额”；1891-1893年海关将从朝鲜进口的部分按“土货进口”统计，土货一般为从国内进口的货物，为与其他年度相一致，归入“进口额”。

如表6所示：烟台与朝鲜的贸易统计也可以有两种类型，分别是“不包括洋货转口”的贸易和“包括洋货转口的贸易”，但洋货转口部分所占份额并不像上海口岸那样重要，也可以说，烟台的对朝鲜洋货转口作用明显弱于上海。按第一种统计方法，烟台的对朝鲜贸易分为进口和出口两大部分，其中出口由土货出口和土货转口两部分构成。从长时段考察，烟台在对朝鲜的贸易中与上海截然相反，出现了明显的贸易逆差，其中进口贸易额高达81%，而出口额却只有19%。按第二种统计方法可见，烟台的对朝鲜洋货转口贸易在其出口贸易中占比30%，由于该部分数字的加入，使烟台的逆差有所降低，但进口额仍然是出口额的3倍，贸易逆差明显。此外，对朝鲜的转口贸易共在其出口中占比51%，略高于以烟台及其腹地资源为中心的直接出口贸易。

由此可见，在中朝贸易网络中，烟台对朝鲜有一定的贸易转口能力和土货输出功能，但其最大的特点是朝鲜物资的进口。进口物资的最大宗就是1894年以后大量进口的高丽参。在传统朝贡体系下，高丽参是重要的朝贡品，在仁川开埠通商以后，特别是1894年以后，烟台利用地理上的优势，在与朝鲜的贸易中继承了高丽参贸易，发展成为了重要的朝鲜高丽参进口港。

第三，第二次鸦片战争以后，依《北京条约》天津对外通商，在国内外贸易中占据了重要的地位，但在中朝海上贸易中的作用却明显逊于上海和烟台。见诸史料的中朝贸易始于1884年，且当年仅有1313两的土货销往朝鲜，¹⁵⁾贸易额十分微小。1886年后天津与朝鲜间的贸易虽渐趋平稳，但除个别年份外，在中朝贸易中所占的比重基本在10%以下。

在中朝海上贸易网络中，天津与上海和烟台不同，与朝鲜间的转口贸易十分微小，天津的朝鲜贸易主要是由直接贸易构成。据史料载，1883-1904年的20余年间的转口贸易仅有几千两见诸史料，进出口贸易所占比重分别为70%和30%。¹⁶⁾在这一层面上，天津与烟台类似，在与朝鲜的贸易中呈现出较明显的逆差，且在网络中主要肩负着进口朝鲜货物的职

15) TIENTSIN TRADE RETURNS, FOR THE YEAR 1884, p.29, 载《中国旧海关史料》第10卷，第491页。

16) 参考1883-1904年《中国旧海关史料》各年册,TIENTSIN部分TRADE IN FOREIGN GOODS-Imports and Re-exports-SUMMARY,TRADE IN NATIVE PRODUCE.-Imports and Re-exports-SUMMARY部分的数据，经计算而成。

能。转口贸易的发达需要有便捷的海路航运条件作为支撑，由于天津地处渤海湾最内侧，距朝鲜西海岸较远，因此与烟台相比，天津的区位优势相对较弱。

第四，营口也是在第二次鸦片战争以后，依《天津条约》与烟台同时对外通商的口岸，其在中国东北地区的贸易中扮演着重要角色，但在中朝海上贸易中所占的比重却是四港中最低的。营口的中朝贸易始于1888年，当年在中朝贸易网络中所占比重仅为0.7%，其后贸易比重虽有所增长，但也仅能维持在4%左右。

在中朝海上贸易网络中，营口与天津类似，贸易结构主要由直接贸易构成，对朝鲜的转口贸易也十分微小。在本文考察的时段内，转口贸易量仅为千余两，进出口贸易比例分别为74%和26%。¹⁷⁾从这一点上很容易发现，营口与天津有着极强的相似性，在与朝鲜的贸易中不仅呈现明显的贸易逆差，其功能主要是吸纳从朝鲜进口的商品，只是贸易规模更逊色于天津。但营口是我国东北地区的首个通商口岸，营口作为中朝海上贸易网络中最北的贸易节点，对于东北地区与朝鲜经贸往来有着重要的意义，这一贸易节点将在一定程度上弥补中朝陆路贸易的不足。

由此可见，在近代中朝海上贸易网络中，上海占有着最重要的地位，但其在中朝海上贸易中的比重却在被紧随其后的烟台慢慢吞噬，而天津和牛庄虽然也有着相对稳定的贸易，但贸易额却十分有限。在“中朝贸易四港”中上海的特点是对朝鲜的洋货转口贸易，烟台虽然也有一定的对朝鲜转口能力，但其最大的特点与天津和营口类似，即是对朝鲜物资的进口。

五、结论

综上所述，本文通过对中朝海上贸易的定量分析，可以得出如下结论：第一，从贸易规模上来看，稳步增长的中朝贸易在中国的对外贸易中所占比重十分微小，但在朝鲜的对外贸易中却仅次于朝日贸易，成为了朝鲜对外贸易的重要组成部分。另外，中朝直接贸易虽然在中国对外贸易中的地位极低，但对朝鲜的转口在中国的国际转口贸易中却占有一席之地。第二、从贸易结构上来看，中国基本处于出超地位，高丽参和生牛皮是大宗进口商品，绸缎和夏布是出口朝鲜的主要物资。若将棉布等对朝鲜的洋货转口贸易也视为出口，则对朝鲜的贸易顺差更为明显。第三，从贸易口岸上来看，中朝贸易网在中国方面由上海、烟台、天津和营口四港组成，在“中朝贸易四港”中上海是第一大港，拥有对朝鲜转口西方工业品的作用，烟台次之，天津和营口的贸易量较少。与上海相反，位于渤海湾的“北方三港”主要肩负着吸纳朝鲜物资的作用。第四，从长时段来看，在中日战争以前上海是中朝贸易的

17) 参考1883-1904年《中国旧海关史料》各年册,NEWCHWANG部分TRADE IN FOREIGN GOODS-Imports and Re-exports-SUMMARY,TRADE IN NATIVE PRODUCE.-Imports and Re-exports-SUMMARY部分的数据，经计算而成。

中心，战后伴随着高丽参的输入和烟台的兴起，中朝贸易的重心开始北移，以烟台为中心的“北方三港”成为了中朝海上贸易另一中心。因此，在近代条约体制下，中朝海上贸易使相对封闭的朝鲜融入了中国的沿海贸易网络，并间接地对接了世界市场。朝鲜不仅可以通过该网络获得中国的传统商品和洋布等近代工业品，朝鲜的高丽参等特产也可以通过该网络流向海外。

参考文献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清季中日韩关系史料》，泰东文化社，1972。
中国第二历史档案馆等，《中国旧海关史料》，京华出版社，2001。
王铁崖，《中外旧约章汇编》，三联书店，1982年。
台湾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馆藏《驻韩使馆保存档案》。
金敬泰，《通商汇纂》，骊江出版社，1987。
韩国文献研究所，《朝鲜海关年报（1885-1893）》，亚细亚文化社，1989。
高丽大学亚细亚问题研究所，《旧韩国外交文书》，1965-1983。
Irish University Press, *Catalogue of British parliamentary papers in the Irish University Press 1000-volume series and area studies series, 1801-1900*, Irish University Press, 1977.
权赫秀，《近代中韩关系史料选编》，世界知识出版社，2008。
张存武，《清韩宗藩贸易》，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1978。
罗爱子，《韩国近代海运业史研究》，国学资料院，1998。
李铉淙，《韩国开港场研究》，一潮阁，1982年。
金容旭，《韩国开港史》，瑞文堂，1976年。
古田和子，《上海网络与近代东亚》，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9。
滨下武志，《中国近代经济史研究》，江苏人民出版社，2008年。
滨下武志，《中国、东亚与全球经济》，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9。
杨昭全，《近代中朝贸易1840-1918》，《社会科学战线》1989年第4期。
刘畅，《近代烟台与朝鲜的贸易》，《韩中人文学研究》2012年总第36期。
姜珍亚，《同顺泰号：东亚华侨资本与近代朝鲜》，庆北大学出版社，2011。
李恩熙（音译），《开港期韩国贸易史研究的成果和课题》，《学林》2013年总第34集。

Abstract

**China-Korea Maritime Trade of Modern Times
in the *China Imperial Maritime Customs Materia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trade structure of China-Korea maritime trade and Chinese ports' influence from 1883 to 1910 on the basis of *China Imperial Maritime Customs Material*. It is pointed out that China-Korea maritime trade networks are consist of four coastal ports. They are respectively Shanghai, Chefoo, Tientsin, Newchwang. Although China-Korea trade takes up a minimum proportion in the system of Chinese trade with foreign countries, it exerts profound effect upon Korean international trade. China is always in surplus state in this trade relationship. Silk piece goods and grasscloth are both export bulk commodities. Korean ginseng and hide cow are primary import products from Korea. Among the four Chinese coastal ports, Shanghai is the biggest one; Chefoo comes second; Tientsin and Newchwang each has little proportion. Shanghai primarily transports Western commodities and exports Chinese goods to Korea. Other three ports which center on Chefoo are used for importing Korean goods. With the prosperity of Chefoo, the focus point of China-Korea trade gradually move towards the North China. All in all, China-Korea maritime trade brings Korea to Chinese market and also indirectly connects Korea with the global market in modern transferring period.

Key words: *China Imperial Maritime Customs Material*; China-Korea trade; port-opening; Shanghai; Chefoo; Tientsin; Newchwang; Jenchuan

국문요약

『중국구해관사료』에서 반영된 근대 조청 해상 무역

이 논문은 《中國舊海關史料(중국구해관사료)》를 이용하여 1883~1910년 사이의 조청 해상무역의 지위, 무역구조, 그리고 중국의 각 항구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찰하여 인천과 중국의 상해, 연태, 천진, 영구 등 4개 항구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음을 밝혔다. 중국 무역 총량에서 조청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았지만 조선과의 국제무역은 무역 총량과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중국은 조선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견직물과 모시가 주요 수출품이었으며 인삼과 소가죽이 조선에서 수입하는 주요한 상품이었다. ‘조청 4대 무역항’에서 상해와의 무역규모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연태였으며 천진과 영구의 비중은 비교적 작았다. 상해항에서는 주로 서양의 상품을 조선으로 중계하거나 중국 상품을 수출하였고 조선 상품은 연태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 3대항’으로 수입되었다. 후일, 연태항이 발달함에 따라 조청 해상 무역의 중심도 점점 북방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결국, 근대 전환기 조청 해상 무역의 발전을 통해 조선은 중국의 무역네트워크 속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키워드: 『중국구해관사료』, 조청무역, 개항, 상해, 연태, 천진, 영구, 인천

对于韩中关系的未来与法古创新的小考

-以民族主义和跨国主义为中心

신 현 승

(원광대)



제4회 한중관계포럼

对于韩中关系的未来与法古创新的小考 -以民族主义和跨国主义为中心-

辛炫承(圆光大/东北亚人文社会研究所)

引言

韩中两国正式建交后，韩中关系不断提高，双方高层互访频繁，经贸、文化、人员往来迅猛发展。但是，韩中关系最近因萨德问题一度陷入建交后最大危机，在双方努力下，于去年年底迎来回暖的曙光。那么，未来的韩中关系将发生哪些变化？未来包含了部分过去跟现在的信息。未来就是由过去跟现在积累而成的，而未来的想象空间，也不大会超出过去跟现在造成的潜意识影响。因此韩中两国的人们必须考虑法古创新的精神和态度。本文从思维的论法来考察过去的东亚民族主义与跨国主义，并通过这些考察从思考上宏观的角度重新探讨未来的东亚国际关系（包括韩中关系）。这里所提到的“法古”中的“古”是指东亚近代的民族主义与跨国主义。

最近，在讨论东亚问题的时候，超越地区和国家以及地理的边界，关注和研究历史、哲学、文学、社会、文化和政治现象的跨国主义人文学备受瞩目。跨国主义所追求的目标并不是从某一特定的国民国家的角度出发，而是从更客观的角度关注各种不同类型的现象。那么，什么才是所谓的跨国主义(transnationalism)？东亚世界圈中，民族主义(nationalism)被翻译成国家主义、民族主义、国民主义、国粹主义、爱国主义等多种汉字词形式，强调了国家或者民族共同体的理念，可以理解为是谋求统一、独立、发展的主义，或者说是面向民族的国家统一和一体化的主义。与此相反，跨国主义(transnationalism)中的跨(trans)是指“跨过……，超越……”的意思。因此，跨国主义是指不受自己国家或者民族、领域的限制的“超国家主义”或者“超民族主义”。超国家主义作为人文学的一个趋势，形成理论也不过几年的时间，在近代，东亚的日本和韩国等地，大都出现过像这样的以超国家主义的思想、超地区性的思想为基础思想的活跃人物。

本文就是从这些问题意识出发，对东亚近代思想史的民族主义和跨国主义进行论述，对思想(文化)民族主义以及有可能战胜它的思想(文化)跨国主义进行研究。这从狭义上是对韩国近代文人，从广义上是对东亚近代文人的超国家主义的研究和构想的追溯。就这一论点，本文选择了东亚作为视角，重点对韩国的近代思想和中国、日本的近代思想论——比如，中国的华夷秩序观、中体西用论，日本的尊皇攘夷论、和魂洋才论进行对比并论述。

进入近代以后，东亚各种思想的民族主义要素和跨国主义要素并存的原因究竟是什么呢？原因就是西欧出现在东亚地区，以及随之而来的西欧思想文化的传入。

一. 超越思想의 民族主义

1. 西欧思想의 传入和思想民族主义

思想和文化原本就是流动的，具有很强的“游牧性”。因此，不管是人为的，还是自然的思想文化，最终都不可能停留在原来的位置，而是不断地像汹涌澎湃的波涛一样，朝着新的目标流去。就像在流动的漩涡中形成的水柱一样，形成新的思想文化思潮，接着又向别的方向流动，又会出现其它形态的思想文化。17、18世纪，从中国明清时代开始，各种汉译西学书和西教书被不断引进，有人称此为冲击朝鲜社会的西欧冲击(western impact)和文化冲击(cultural impact)¹⁾。此后，随着西欧思想文化的正式传入，在近代东亚三国(韩、中、日)出现了两种吸收西欧思想的方法。一种是作为反题(Antithese)而诞生的“思想的民族主义”，另外一种则是尝试融合和折衷(折中)的“思想的跨国主义”。

首先，了解“思想的民族主义”。在西欧，正如我们所谈到的，民族主义被翻译成通商、民族主义、国家主义、国民主义等。因为在不同的文章结构中被表现为多种形式，所以事实上下一个相同的定义是比较困难的。主要的论者盖尔勒(Ernest Gellner)将其定义为“要使政治和文化或者民族相一致的思想或者运动”，这一定义从理论的角度出发，某种程度上具有一定的说服力。另一方面，“文化民族主义”概括地说就是，并不是指民族主义的政治或者经济层面，而是指“文化的层面”，该文化其实就是民族主义的本质，代表“民族文化”或者“国民文化”的观念就是它的实质内容。²⁾这样一来，可以将本文中使用的“思想的民族主义”或者“民族思想”定义为将本国或者本民族的思想放在首位，排斥他人的思想。

最终，我们可以认识到东亚近代的“思想民族主义”是在和西欧接触，吸收和引入他们人为的或者自然的思想文化的过程中，出现的保护本国思想文化，排斥西方列强或者具有很强排他性的国粹的、民族的理念。接下来，将论述朝鲜末期的儒学者崔汉绮的思想，他提出了有可能战胜思想民族主义这一观点，崔汉绮的思想中包含了很强的可以战胜民族主义的折衷主义和融合主义的要素。

2. 战胜思想民族主义的可能性

就人类悠久的思想文化历史而言，折衷主义是“超国家性的过渡形式”的自然现象。所谓折衷(中)主义(eclectism)，源于希腊文eklegein，意为“选择的”、“有选择的”。一般意义上的折衷主义，就像字面意思一样，指从不同的体系中提取可以作为真理的部分，在新的主

1) 李元淳：《朝鲜西学史研究》，第37页，一志社，1986年。转引自李光来：《韩国的西学受容史》，第33页，开放的书籍，2003年。

2) 铃木贞美著，郑在贞等译：《日本的文化民族主义》，第39页，小花，2008年。

张中，通过调整、融合的方式转化为一个的意思。根据不同的情况，也有称之为诸说混合主义的。³⁾ 另外，也有称折衷主义是由于外部强烈的民族主义思想文化导致的必然产物。

折衷主义是拒绝思想文化民族主义，从“跨国思想”最终的目标中形成的折衷或者融合。折衷主义是从韩国的近代以前，即朝鲜后期开始萌芽的。代表人物是崔汉绮(1803-1877)。崔汉绮开创了和当时 朝鲜末期一般的对外认识论不同的思考方式。他曾说过这样的名言：

红毛之国，红毛何尝为贱格。黑面之国，黑面未必为丑貌。⁴⁾

这句话批判了混同和歧视人的面貌、贵贱和美丑的行为，即批判了人种主义。崔汉绮的思考方式和当时一些完全沦陷于在传统朱子学的基础上产生的民族主义的思考类型的学者不同。这作为认识“思想的超国家性”或者“超领域性”的前提，也被称为对外认识论。

到了朝鲜后期，在崔汉绮(1803-1877)的气学体系中鲜明地反映了战胜和超越国粹性的思想民族主义的可能性。他认为开辟东西航线，随着东西洋技术和文化交流的加深，东西南北的人们在将来相互合气为一，揭露气的全貌，使东西古今的知识慢慢地融合，分为若干分支的“中古之学”⁵⁾也是根据气学所揭示的。即“洞万古位一生，与万物为一体，可以开后世耳目，会天下学问”⁶⁾。他认为气渐渐显露，地球上的所有人形成宇宙天地间盛行的道理与和谐的同时，开创生存下去的线索。在这样的历史认识下，天下学问的会通[融合、合并、这种、和谐]成了崔汉绮学问的核心关键词。

崔汉绮见证了世界的相互沟通和融合现象，他为了对应的警戒线正在消失的当时的现实，选择了折衷（中）和融合。

二. 作为思想的跨国主义

人类的思想，从最初就超越了国家的、地区的领域。它超越了认为的或者自然的警戒，具有超越的性质。因此，思想不可能有国界。思想是人类特有的最终产物，是自然地留存下来的。在此意义基础上，可以论述思想的跨国主义。李光来曾说过“不管是思想还是科学，作为文化的它们，在‘脱领土化’和‘再领土化’过程中，经历所谓折衷主义的超文化的过渡形式

3) 李光来：《韩国的西学受容史》，第184—186页。

4) 崔汉绮《仁政》卷1，测人门，《天下测人同异》。“红毛之国，红毛何尝为贱格；黑面之国，黑面未必为丑貌”。

5) 崔汉绮所说的中古之学，指上古时代圣人之后出现的形而上学，网罗了古今东西的占卜吉凶祸福的杂学、说教空无的佛学、论及形而上的理、道的心学、理学，崇拜神、天，信仰灵魂不灭，天国地狱之说的基督教、伊斯兰教等。

6) 《仁政》卷12，教人门，《统古今为一生》。“洞万古为一生，与万物为一体，可以开后世耳目，会天下学问”。柳生真《崔汉绮气学研究》，第96页，景仁文化社，2008年。

是自然的事情。

作为“没有器官的身体”，因为文化的本质具有“游牧性”，所以实现文化的领土主义或者封闭自守的政治锁国不仅是件难事，而且从最初就是不可能的事情。因为文化可以与结构或者形态互相交织并混用，只要掌握气的方向，就可以成为积极移动的搬运工。⁷⁾ 即指出了思想和文化的游牧性、脱领土性、折衷主义的特性。最终，折衷和融合成为跨越的必然结果，折衷主义和融合主义是跨国主义或者其它自身的变形和模样。

1. 东西折衷论和跨国主义

近代，东亚三国不能再墨守思想文化的民族主义了。像潮水一样，汹涌而来的跨国思想文化的浪潮中，东亚三国为了从某种程度上实现自我防御，纷纷开始尝试东西折衷论。

在中国，作为世界文化中心的中华，随着西势东渐思潮的推动，毫无选择地开始积极地承认具有超民族性和超国家性的思想文化跨国主义。还有，从那时起，中国不得不经历历史上从未有过的传统思想体系与外来文化的矛盾和紧张等无法避免的文化冲突。为了挑战这一文化冲突，不得不动员各界开启智慧。⁸⁾ 这就是从“国际的民族思想”向“开放的跨国思想”的转化。这样的状况认识和理论产物就是“中体西用论”，即为了缓和中学和西学间的紧张的“体”和“用”两者之间的关系，一方面通过“道”和“器”说明了折衷主义。即将中国的儒家思想作为基础，将西方的技术闻名当做富国强兵的手段。另一方面，一边把吸收西学归为正当的行为，既限制其范围，又体现了一种文化的折衷主义。

在日本，“和魂洋才”这一理念是折衷主义的始祖。“和魂洋才”是指日本开始吸收洋学的18世纪初一直到第二次世界大战结束，从根本上规定了日本人对人类形成的看法。“和魂”狭义上是指“儒佛的教养”，广义上是指将它们教养融合起来的日本人传统的情感或精神。“洋才”是指排除世界观、人生观等要素的，作为“技术学”的西方的学问和艺术。和魂洋才的理念是指限定西方的文明和文化为技术文明，并迅速地吸收，从外部开始加强受限制的东洋、日本传统的形而上学思想和情感。⁹⁾ 这期间，佐久间(1811-1864)的“东洋道德，西洋艺术”，桥本左内的“器械艺术取于彼，仁义忠孝存于我(机械、艺术从他们那里获取，仁义和忠孝我们这里获得)”[这里所指的艺术是“技术”的意思]等名言中都充分说明了“和魂洋才”所包含的内容。

最后，分析韩国[朝鲜]的情况。韩国也出现了类似中国的中体西用论和日本的和魂洋才论的折衷主义，即“东道西器论”。“东道西器论”的根源可以追溯到朴珪寿，他的弟子尹善学在1882年提出了东道西器论。1876年在日本的强迫下开国的朝鲜，到了19世纪80年代的时候，打算对抗想排斥西方文化的卫正斥邪思想，开化派（进步主义）抬头，作为自主的采西

7) 李光来：《韩国的西学受容史》，第186页。

8) 同上书，第207页。

9) 见平凡社编：《哲学事典》之“和魂洋才”条，第1535-1536页，平凡社，1989年。

策的理论，提出了“东道西器论”。打算引入推动这一理论发展的西方文化的运动领袖是开化派的朴珪寿，开化派最早的思想运动就是东道西器。根据上面分析的内容，中国的中体西用论，日本的和魂洋才论和韩国[朝鲜]的东道西器论都可以说是一种“东西折衷论”，把战胜和超越“思想文化民族主义”作为目标的“跨国民族”过渡时期的现象，可以说是必然的结果。这些见解都有一个共同点，都是在自身传统文化的基础上吸收西方文化。因此，这是跨国主义过渡时期的现象，作为跨国主义的表现形态出现的东亚近代折衷主义思潮可以成为掌握东亚近代性的真相的论证材料。

2. 儒学家和跨国主义

承接上一段的论证，本节中，把延续19世纪畿湖学派的儒学家及提出“东西折衷论”的申箕善(1851-1909)的思想和他的儒学理解作为主要线索，探究跨国主义的可能性。儒家思想和西方学问表面上看起来是对立的，根据申箕善的观点，这两者具有能够互相融合和折衷的因素。申箕善认为，和去除形而上学的新儒家思想的理气、重新创造有贡献的理论相比，提出针对西方势力的侵略的具体、现实的“实学”对策方案是非常必要的。他在1907年，将儒教作为根本，利用西方的新学问，以统一新旧思想为目的创立了大同学会，曾担任过会长。

“盖中土之人明于形而上者，故其道独尊于天下。西国之人明于形而下者，故其器无敌于天下。以中土之道行西国之器则环球五洲不足定也。乃中土之人不惟不能行西国之器，并与中土之道而德徒名无实委靡将坠。此所以日被西人之侮而莫之御也，苟能举吾之道则行彼之器。亦犹反掌尔若是乎，道与器之相须而不离也。”¹⁰⁾

这里所提到的“中土之人”是指东方人，与其相对峙的“西国之人”是指西方人。其主张应该以传统的东方思想文化为基础，发展西方的科学技术。首先要自我反省，借用申箕善的表达方式，首先要认识到东方人不懂西方人的科学技术，并提出警示说，如果这样的话，东方人的价值也会衰退。其主张道器并行，即“东方的道”和“西方的器”相结合、折衷（中）、互补。这是被强制开港(1876年)以后，在多变的国际格局中，朝鲜必须适应的新的时代问题，对此申箕善提出了现实的应对方案。朝鲜的生存条件已经只有走分享和共存道器，协调和融合东西文化之路了。¹¹⁾ 申箕善意识到了这样的思想文化跨国主义存在的可能性，并将其作为生存方法，开创了新的思考方式。申箕善是一位非常开明的儒学家。

他主张东道优越论，与保持守旧的、卫正斥邪派的思想不同，他承认“思想文化跨国主义”。顺应不管是人为的还是自然的近代跨国时代的序幕，世界开始动摇。伴随着物质文明

10) 安宗洙：《侍讲院文学东阳申箕善序》，《农政新编》。申箕善：《序文》，《农政新编》。

11) 李光来：《韩国的西学受容史》，第199页。

的流通, 政治文明的流通也超越了经济开始不断渗透。在这样的时代下, 申箕善超越经济, 积极吸收其他的思想文化, 将它们与自己的思想文化联系起来, 并尝试折衷(中)。这就是东西思想文化的融合。申箕善认为这种融合是解救正处在危机中的朝鲜的唯一的途径, 他不愧是一位开放的儒学家。

结 语

本文中, 本论的第一部分分析了从19世纪中叶, 开始正式传入的西欧思想以及应对它的内部民族主义的思想要素。同时又从另一方面, 以19世纪后半期开始一直活跃到朝鲜末期的儒学者崔汉绮为例, 就战胜发展中的“思想民族主义”的可能性, 对崔汉绮的东西洋折衷主义的“气学”进行了分析和考察。

然后对作为反对思想民族主义而出现的“思想跨国主义”进行了分析, 讨论了“东西折衷论和跨国主义”。通过对比的方法, 首先论述了东亚近代的折衷主义思潮, 即中国的“中体西用论”和日本的“和魂洋才论”, 然后又分析了韩国近代的“东道西器论”。接下来又提出了朝鲜末期的儒学者申箕善的东西方思想融合的主张, 讨论了它和跨国主义的关联性。

20世纪80年代中期以后, 超越国境的全球化(globalization)开始席卷全世界, 现在仍在继续。跨国主义正是与全球化一脉相承的学术思潮, 世界的各个领域都一直保留着跨国现象。东亚近代的学术思潮正是最近的跨国思潮序幕的信号弹。对抗超越国境的思潮的民族主义思考和尝试积极吸收、折衷(中)、融合的跨国主义思考并存的时代, 就是东亚近代思想的时代。

【参考文献】

- 崔汉绮: 《神气通》、《推测录》、《运化测验》。
- 安宗洙: 《农政新编》。
- 金允植: 《续阴晴史》。
- 韩国学文献研究所: 《申箕善全集》(1), 亚细亚文化社, 1981年。
- 平凡社编: 《哲学事典》, 平凡社, 1989年。
- 沟口雄三等编著, 金锡根等译: 《中国思想文化事典》, 民族文化文库, 2003年。
- 佐久间象山: 《渡边山 高野长英 佐久间象山 横井小楠 桥本左内》(日本近代思想大系 5), 岩波书店, 1971年。
- 高坂史朗著, 柳生真等译: 『近代という躰き』, 理学社, 2007年。
- 柳生真: 《崔汉绮气学研究》, 景仁文化社, 2008年。

刘奉学：《朝鲜王朝后期的学界与知识分子》，新旧文化社，1999年。

李容柱：《东亚近代思想论》，理学社，2009年。

李光来：《韩国的西学受容史》，开放的书籍，2003年。

李元淳：《朝鲜西学史研究》，一志社，1986年。

铃木贞美著，郑在贞等译：《日本的文化民族主义》，小花，2008年。

朴正心：《从申箕善的《儒学经纬》看东道西气论的思想特征 I》，《历史与现实》60，韩国历史研究会，2006年。

崔允洙：《东道西器的逻辑与民族话语的解释》，《东洋哲学研究》，第38辑，2004年。

中文摘要

对于韩中关系的未来与法古创新的小考 -以民族主义和跨国主义为中心-

辛炫承(圆光大)

韩中两国正式建交后,韩中关系不断提高,双方高层互访频繁,经贸、文化、人员往来迅猛发展。但是,韩中关系最近因萨德问题一度陷入建交后最大危机,在双方努力下,于去年底迎来回暖的曙光。那么,未来的韩中关系将发生哪些变化?未来包含了部分过去跟现在的信息。未来就是由过去跟现在积累而成的,而未来的想象空间,也不大会超出过去跟现在造成的潜意识影响。因此韩中两国的人们必须考虑法古创新的精神和态度。本文从思维的论法来考察过去的东亚民族主义与跨国主义,并通过这些考察从思考上宏观的角度重新探讨未来的东亚国际关系(包括韩中关系)。这里所提到的“法古”中的“古”是指东亚近代的民族主义与跨国主义。所以本论文对于东亚近代思想史的民族主义和跨国主义进行论述。对思想(文化)民族主义以及有可能战胜它的思想(文化)跨国主义进行研究。从狭义上,这是对韩国近代文人,从广义上是对东亚近代文人的超国家主义的研究和构想的追溯。就这一论点,本论文中选择了东亚作为视角,重点对韩国的近代思想和中国、日本的近代思想论一比如,中国的华夷秩序观、中体西用论,日本的尊皇攘夷论、和魂洋才论进行对比并论述。进入东亚近代以后,各种思想的民族主义要素和跨国主义要素并存的原因究竟什么呢?原因就是西欧出现在东亚地区,以及随之而来的西欧思想文化的传入。

本论文中,本论的第一部分分析了从19世纪中叶,开始正式传入的西欧思想以及应对它的内部民族主义的思想要素。同时又从另一方面,以19世纪后半期开始一直活跃到朝鲜末期的儒学者崔汉绮为例,就战胜发展中的“思想民族主义”的可能性,对崔汉绮的东西洋折衷主义的“气学”进行了分析和考察。然后对作为反对思想民族主义而出现的“思想跨国主义”进行了分析,讨论了「东西折衷论和跨国主义」。通过对比的方法,首先论述了东亚近代的折衷主义思潮,即中国的中体西用论和日本的和魂洋才论,然后又分析了韩国近代的东道西器论。接下来又提出了朝鲜末期的儒学家申箕善的东西方思想融合的主张,讨论了它和跨国主义的关联性。

上世纪80年代中期以后,超越国境的全球化(globalization)开始席卷全世界,现在仍在继续。跨国主义正是与全球化一脉相承的学术思潮,世界的各个领域都一直保留着跨国现象。东亚近代的学术思潮正是最近的跨国思潮序幕的信号弹。对抗超越国境的思潮的民族主义思考和尝试积极吸收、折衷、融合的跨国主义思考并存的时代,就是东亚近代思想的时代。

토론문

<한중관계의 미래와 법고창신에 대한 소고> 토론문

전홍석(원광대)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세계지배야욕의 시대가 끝난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이후에도 인류사회는 군사와 경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 이념적 대립과 산업·기술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분되어 대립과 갈등을 겪어왔다. 냉전(cold war)이 종식된 뒤에는 미국의 유일지배체제 속에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수사학 아래 다양한 국가론적·문명론적 대응과 모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과정에서 폭로된 미국 중심의 서구화론, 즉 월가표준을 세계표준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세계화 담론의 파산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미국발 금융위기(2008년)와 함께 찾아온 유럽발 재정위기(2009년)는 세계경제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이 일련의 세계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동아시아(East Asia)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G2’의 반열에 오른 대중화경제권이 21세기 초까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세계교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또한 2008년 카네기재단(Carnegie Trust)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아시아권의 세계적 위상 제고와 세계경제의 동아시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한중일 3국은 전형적인 근대국가로 자처하면서 패권적 ‘국가주의(민족주의, nationalism)’에 기대어 반목과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여전히 ‘근대국가 시스템’과 이로부터 기인된 ‘냉전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본래 냉전질서는 전쟁을 멈춘 종전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국지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시상황을 일컫는다. 이러한 냉전질서는 일상의 공간과 사고의 틀 속까지 전쟁의 의식과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경계해야 할 점은 현 동아시아 질서의 축이 신종플루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곧 평화질서와 양립할 수 있을 만큼 새롭게 진화해 업그레이드된 ‘신냉전질서’라는 사실이다.

최근 역사·영토 문제 등의 신민족주의, 신냉전 기류는 동아시아의 분열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본은 점증하는 인접국의 국력신장에 맞서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군사비지출 세계 4위, 해군력 2위를 바탕으로 평화헌법 폐지, 집단자위권, 핵무장의 노골화, 주변국가와의 독도, 센카쿠(尖閣)열도 영토 분쟁 등 여러 잡음을 내고 있다. 중국 역시도 대국굴기大國崛起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과도한 패권의식으로 주변국을 복속시키고자 하는 대국주의적 야욕을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국과 미국의 ‘주요 2개국(G2)

시대'를 선언하면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일본과는 다오위다오(釣魚島) 분쟁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난사(南沙)군도와 시사(西沙)군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동북공정, 불법어로, 이어도 영토 분쟁화 시도 등은 한국과 직접적으로 갈등을 빚는 대표적인 사안들이다.

이러한 현 동아시아권의 제반 분쟁과 균열 현상들은 초국가적 평화협력 구상으로서의 '국제 공공성' 공백이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에 지속가능한 '문화와 평화 질서'의 출현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다. 그리고 한중 양국이 이러한 새로운 동아시아와 세계 구상을 위한 핵심 고리임은 물론이다. 양국이 솔선수범하여 요구한 역사 연대체와 그 특유의 문화 친근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우경화, 러시아의 군사 팽창주의, 미국의 전통적 서구패권주의를 일소할 국가 간 선린우호의 전범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한중은 양자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인류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로 보건대 금일 발표자의 <한중관계의 미래와 법고창신法古創新>에 관한 발제는 유의미하다. 발표자가 논급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 말하는 '법고法古'의 '고古'는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를 가리킨다. 특히 그 논점은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한국의 근대사상과 중국, 일본의 근대사상, 즉 중국의 화이질서관華夷秩序觀,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 일본의 존황양이론尊皇攘夷論, 화혼양재론和魂洋才論 등을 상호대비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발표자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동아시아의 여러 사상 속에 민족주의적 요소와 초국가주의적 요소가 병존하게 된 원인을 서구의 사상문화가 동아시아로 수입된 데서 찾는다. 그 핵심 기제는 '서구충격(western impact)'과 '문화충격(cultural impact)'이라고 덧붙인다. 이 양자의 동인은 서구의 사상문화가 본격적으로 근대 동아시아 한중일 3국에 들어오면서 서구사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치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로부터 유형화된 것이 하나는 반명제(Antithese)로 탄생한 '사상적 민족주의', 또 하는 융합과 절충을 시도한 '사상적 초국주의'로 귀결시킨 것은 타견이다.

이 글의 요지는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아시아 초국가주의의 과도기적 형식인 '절충주의'와 '융합주의'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 요소를 중국의 '중체서용론'과 일본의 '화혼양재론'을 동일기제로 흡수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선 말기의 유학자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기학氣學사상, 더 나아가 박규수朴珪壽, 그의 제자 윤선학尹善學과 접맥되는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의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에서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발표자의 논제설정은 '세계화 담론'이 지배하는 금세기에도 여전히 '근대성'과 '전통성'의 정위定位문제가 관건이 되는 시점에서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또한 인류와 동아시아의 평화협력, 공동번영의 메세지를 '세계·동아시아' 속의 한중관계, 한중관계 속의 세계·동아시아' 차원에서 모색하는 데도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성과 효용성을 적극 평가하면서 한편으로 그에 따른 의문점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질문하고자 한다.

1. 발표자는 사상과 문화는 본디 유동적이고 강력한 ‘유목성’을 갖는다고 기술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목성이 근대 동아시아가 서양과 갖는 문화사상적 교류 양상을 적시해주는 핵심어로 보이는데 그 명확한 상관성을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2. 근대 동아시아 지형에서 동서양의 융합주의 내지 절충주의였던 동도서기, 중체서용, 화혼양재의 공통점은 발표자도 지적한 대로 자신의 전통문화의 기초 위에서 서방문화를 흡수하자는 구호였다. 이것은 한편으로 ‘동양적 정신문화’와 ‘서양적 물질문화’의 결합형식일 뿐이라는 위험성이 수반된다. 인류사에서 그에 합당한 정신문화의 토대가 부재한 물질문화의 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서구의 제국주의적 득세는 그 배후에 존재하는 민주, 과학, 자본의 인자들이 자리한다. 근대 동아시아인들이 이를 인지하기까지는 지난한 역사적 착오와 비용이 뒤따랐다. 심지어는 근대 동아시아의 절충주의 사조를 ‘소의 다리를 가진 말의 몸’으로 달리고자 한다는 조롱 섞인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서 초국가주의를 지향하는 발표자의 법고창신적 모색이 이러한 시대착오적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현재적 비전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3. 21세기는 동아시아인 모두에게 ‘초국적 동아시아 비전’에 대한 공론화가 요청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정치 권력자와 기득권자의 이익 수단으로서의 그릇된 국가 관념이 아닌 타자와 호응하는 공존공영의 상호교류 주체적인 국가관 형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지난 패권주의 시대에 이방 세계의 타자에 대한 정복과 승리의 논리가 득세했다면 현세기 오늘날은 이질적이고 적대적 관계의 그들과 대화하고 화합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공감적 공존의 철학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발표자의 발제가 제공해주는 법고창신의 ‘동아시아적 공공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취약한 중국에서 '신시대 중국'으로

– 상하이 한국인의 전환기 인식 변화

김 판 수

(인천대)



제4회 한중관계포럼

취약한 중국에서 '신시대 중국'으로 : 상하이 한국인의 전환기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인천대 중국학술원
김판수

20180518

I. 서론

- II. 취약한 중국의 전환
- III. 상하이 한국인의 중국 인식 전환
- IV. 결론

‘신시대’ 중국의 징후 및 실제

- 징후 : 2017년 초, 상하이 장기거주 한국인
 -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였던 상태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되돌아가고 있다”
- 실제 : 2017년-2018년, 당-국가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당헌 삽입
 - 2018년 3월 13기 전인대에서 헌법 수록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

@ 중심 개념 선택에 따라 해석 상이

- 1. 언론 : ‘**시진핑 사상**’(cf. **마오쩌둥 사상**) – 광기와 독재 이미지 강조 -> 현실 설명력 낮음
- 2. 현대중국 연구자 : ‘**신시대 중국**’ –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사회경제적 위기 강조 -> 전망의 부재
- 3. 필자 :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 ‘Post-鄧小平 체제’로서 ‘특색 사회주의’ 재정립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 특색 사회주의

- 1982년 12차 당대회 등장. 이후 1992년 남순강화 및 2002년 3개대표론 거치며, 중국의 자본주의화 경향 대표

-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재편 이슈들

1. 역사 맥락: (2017년 러시아 혁명 100주년 + 2019년 5-4운동 100주년) →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2. 당의 약속 : 시진핑 ‘2개의 100년’ : 1921-2021년 목표는 소강사회 실현 / 2021-2121년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3. 발전 모델 전환 : 선부론 (先富論) → 공부론(共富論)

왕후닝(王滬寧) 발언

- 과거 :

“미국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사적소유권의 영향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식 :

“시진핑 사상은 현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이며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발전이다.”

홉스 [리바이어던(Leviathan)]

- “국가가 없다면 소유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 “‘개인이 절대적 소유권을 갖는다’는 학설은 ... 더 이상 국가가 존재할 수 없게 만든다”
- “국가만이 토지, 재화 등 생존과 좋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의 계약 방식을 정할 수 있다”
- ‘안전과 인격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수 있다’

→ 홉스의 소유권 등 사상은 스피노자와 발리바르 등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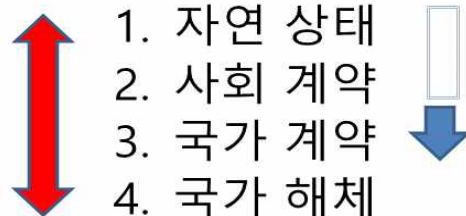
Q.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의 ‘길’?

→ 홉스적 국가 or 로크적 국가

?? or 미국

적극적 자유(혁명) or 소극적 자유(선거)

상대적 소유권 or 절대적 소유권



I. 서론

II. 취약한 중국의 전환

III. 상하이 한국인의 중국 인식 전환

IV. 결론

취약한 중국(1992-2005)과 자본주의로의 길

1. 노동 억압 : 해외 자본 진출 증대
2. 내외분리 : 내국인 강압 통제 vs 외국인 보호 특혜
 - Ex) 내국인 대상 : '안정이 모든 것에 우선(穩定压倒一切)'
 - Ex) 외국인 대상 : 1984년 10월 덩샤오핑, '어떤 분들은 투자 위험이 클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작하는 가운데 위험이 생기면 우리 다 같이 책임을 지면됩니다. ... 우리를 도운 사람들이 얻는 이익은 우리에게 준 도움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한 중국(2006년~2015)과 노선 조정

- 중국 <11-5 계획> : 양적 성장 ➔ 질적 성장
- '안전' :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 사소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도 외국인 '국외 추방' 가능
- '소유권' : 외국인 부동산 제한 및 규제 시작
(ex) 일반여권 -> 전자여권

I. 서론
II. 취약한 중국의 전환

III. 상하이 한국인의 중국 인식 전환

IV. 결론

상하이 장기거주 한국인 인터뷰

- 기간 : 2015년 12월~2018년 1월 (약 3년)
- 방문 : 총 5회, 매 회 7~9일 체류
- 인터뷰이 : 기업인, 주부, 주재원, 기관 활동인 등 총 62명
(1인 최소 2시간 최대 17시간 인터뷰)
- 방법 : 심층 인터뷰(구술사적 방법론 활용)
- 채록 자료 : 약 5,000페이지(A4)

취약한 중국의 시대 : 내외분리(1992-2005)

- “중국은 안전하지 않은 국가”라는 인식
 - 거주 : 외국인 전용 거주공간[亚运村 / 古北(작은 UN)] * 일반 거주 지역 렌트비와 약 8-10배 차이
 - 치외법권 : 음주운전(“不听懂”), 성매매(“주재원”), 폭행 등 모두 쉽게 해결 가능
 - <-> 1990년대 초중반까지 “공안이 길거리에서 일반 중국인 뺨을 때리던 시절”
- “중국은 소유권제도 불안”이라는 인식
 - 부동산 : 2001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장려(세금 혜택, 무제한 구매 가능, 높은 레버리지 등)
 - FEC(외국인 전용 화폐) : 높은 환차익 얻도록 방기

성장한 중국의 시대 : 내외혼합(2006-2015)

- “한국인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인식
 - 거주 : 외국인 전용 거주공간 및 한인타운 내 중국인 입주자 급증 (2008-9년)
 - 법치순응 : 치안관리 처벌법 개정으로 경범죄, 성매매, 사소한 다툼으로도 외국인 추방 가능
- “중국의 재산권 관련 제도는 변화된다”는 인식
 - 부동산 : 외국인의 부동산 개수 제한, ‘한인타운’의 쇠락 유인 (2008-9년)
 - 외국인 가능 업종의 경우에도 ‘위생’ 등 허가 까다롭게

신시대 중국 : 내국인 우선(2016-)

- “한국인은 눈치보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
 - 거주 : 한인타운 내 부동산 소유주는 90% 중국인, 대부분 한국인은 계급-계층에 따라 월세 살이
→ 생활 안정성 및 안전성 하락
 - 위계화된 법치 : 외국인 등급제 강화 Ex) 신규 Z비자 발급시 대졸 미만은 발급 거부, 60세 이상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 거부. 중국 내 외국인 졸업자는 외국에서 2년 경력 쌓은 후 중국 내 노동허가
→ 사회적 안정성 및 안전성 하락
-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변신하고 있다”는 인식
 - 부동산 : 상하이의 경우 외국인용 1년 동안 세금 납부 기록 있어야 부동산 구매 가능. 거주 지역 부동산 소유 없는 경우 상하이 내에서 자녀로컬 교육 불가
 - 소유권 : 과거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형성한 자산에 대한 몰수 “공포” 증가

I. 서론
II. 취약한 중국의 전환
III. 상하이 한국인의 중국 인식 전환

IV. 결론

결론 1

-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중국화'로 나아갈까?
 - 마오쩌둥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였듯, 시진핑 사상 또한 '사회주의의 중국화'로 내세우고 싶겠지만, 아직 담론만 부유하는 상태
 - 다만, 시진핑 중국은 '미국식 자본주의적 길'이 아닌 '대안적 길'을 걸어가야함을 천명. 즉 덩샤오핑의 '특색 사회주의의 길'은 폐기되는 수순.

결론 2

•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 로크주의 국가체제에서 홉스주의 국가체제로?

- 현재 세계적으로 '분배정치' 화두 - 20세기 초 미국에서도 로크식의 '절대적 소유권론'은 무너짐. 현재 수많은 자본주의적 국가들이 '세금 인상'을 통해 '인격적 삶' 제고 노력(탈신자유주의 효과)
- '중국 패권'이 미국 패권을 대체하려면 대안적 세계상 필요
- 상하이 한국인의 '25년 경험'에서도 드러나듯, 중국 당-국가는 '국정(国情)'에 따라 소유권을 끊임없이 조정해오고 있음. (cf. 토지에 대한 국가 소유권 유지 / 실제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가는 '인민'을 대상으로 소유권 '접근성'을 계속 조정 중, 대표적인 제도가 '호구')

➔ 중국의 '신시대'가 도래한다면, 상대적 소유권 체제에 기반한 세계질서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超越外交战略焦虑与外交走形： 关于中韩关系的思考

张景全

(산동대)



제4회 한중관계포럼

超越外交战略焦虑与外交走形：关于中韩关系的思考

张景全(山东大学东北亚学院教授、博导，东北亚研究中心副主任)

摘要：中韩关系乃至东北亚各国关系中，存在着一种普遍的现象，即外交战略焦虑与外交走形。外交战略焦虑主要分为发展焦虑、接近焦虑与期待焦虑；由于外交战略焦虑的存在，导致安全外交与经贸外交的走形、受损。超越外交战略焦虑与外交走形，中韩之间存在有利条件与可行路径，应该率先而为。

提 纲

中韩关系，乃至东北亚各国关系中，存在着一种普遍的现象，即外交战略焦虑与外交走形。外交战略焦虑主要分为发展焦虑、接近焦虑与期待焦虑；由于外交战略焦虑的存在，导致安全外交与经贸外交的走形、受损。超越外交战略焦虑与外交走形，中韩之间存在有利条件与可行路径，应该率先而为。

一、外交战略焦虑

外交战略焦虑是指，为了实现国家的外交目标而对国家全部资源进行调动过程中，对真实原因或无现实依据原因的紧张不安。中韩外交战略焦虑依据焦虑的性质，可分为：适应性外交战略焦虑与非适应性外交战略焦虑。外交战略焦虑依据外交资源指向，可分为内部外交战略焦虑与外部外交战略焦虑。外交战略焦虑依据触发原因，可分为多种；在中韩之间，主要存在着发展焦虑、接近焦虑、期待焦虑，即因为相关行为体的发展、接近以及彼此对对方期待所引发适应性或非适应性的内部或外部紧张不安。

二、外交走形

由于外交战略焦虑的存在，中韩外交互动中出现了外交走形。外交走形指的是，对于外交现实的外交偏离。之所以称之为外交走形，是因为，中韩双方都认为中韩关系是一对非常重要的双边关系，但是，在外交互动中，却经常发生一些偏离双边宣示主轴的行为。在中

韩之间，主要体现在安全外交走形与经贸外交受损。

三、思考与建议

中韩乃至东北亚区域普遍存在的外交战略焦虑与外交走形，与东北亚国家的发展趋势已经出现严重不相适应的症候。即东北亚区域各国体量与影响力事实上很可观，但由此在区域内的外交战略焦虑与外交走形，使各个成员纠结于本区域内，在本区域内消耗了大量资源，即无法高效解决本区域的议题，也导致在走向世界时受制于本区域。因此，我们需要思考外交战略焦虑与外交走形这样的问题，以理性与科学的态度对待这些症候，而不是视而不见、掩耳盗铃。在此，笔者提出如下几点思考与建议。

第一，外交目标由实现利益导向，向实现利益与信任导向转化。

第1，从中韩结构性矛盾认知向中韩结构性合作认知转化。

第2，持续推进中韩安全交流，防止把安全问题外包给经贸问题。

朝鲜半岛和平机制构建与中国的作用

毕颖达

(산동대)



제4회 한중관계포럼

朝鲜半岛和平机制构建与中国的作用

毕颖达*

一、构建半岛和平问题上中国的角色定位

1、朝鲜战争的参与方。在美国的安全压力之下，中国被迫参加朝鲜战争，成为冲突的主要当事方。1953年7月27日，交战双方签署了《朝鲜停战协定》，中国作为当事国签署了该协定。无论从事实上看还是从国际法层面看，中国成为朝鲜半岛问题的当事方。

2、在朝核问题上中国是重要的利害相关者，但并不是问题的直接当事方。

1) 朝鲜发展核武器的目的。

直接原因是为了维护体制安全：朝鲜发展核武器，一是为了寻求自保，二是继续以此寻求与美国改善关系；从这一角度来看，美朝是朝核问题的直接当事方。

如果朝鲜发展核武器最终是为了成为核国家，那么这问题是朝鲜自身的问题。

3) 中国不是朝核问题的直接当事方，但是却是重要的利害相关者。韩国的角色也类似。

虽然中国不是核问题的直接当事者，但朝核问题严重威胁中国的安全利益，因此中国强烈反对朝鲜发展核武器。中国不是朝核问题的直接当事方，因此在和平解决朝核问题过程中，中国起不了决定性作用。

3、在构建半岛和平机制问题上，中国是不可或缺的当事方。

半岛无核化问题牵引出了半岛和平机制建设问题。在和平机制建设问题上，中国又成为当事方，这一角色是由朝鲜战争这一历史事实延伸出来的，也是《停战协定》中条款的规定和要求，即要把《停战协定》转变为《和平协定》，需要交战双方的同意，而朝鲜战争不是两个单个国家间的战争，而是由多个国家参与的两大敌对集团之间的战争，因此要正式结束这场战争，需要多方参与，至少需要《停战协定》的签署国家参与其中。韩国虽然没有在协定上签字，但作为战争的直接当事国应该参与。

二、中国在维护半岛和平方面的努力

* 山东大学东北亚学院副教授；山东大学（威海）中韩关系研究中心副主任、研究员；

1、中国一直在努力维护朝鲜半岛和平与稳定。

1) 政策方面，对半岛政策：维持和平稳定、半岛无核化、支持朝韩自主和平统一。

在朝核政策上：坚持半岛无核化、维护半岛和平稳定、坚持对话协商解决问题。中国的朝核政策是半岛政策的一部分。

2) 实践中一直为半岛和平积极作贡献。

- 积极参与构建半岛和平的四方会谈，并提出建设性方案。
- 积极推动对话解决朝核问题：从三方会谈到六方会谈
- 六方会谈中断期内，在管控半岛危机方面发挥重要作用，同时为解决核问题不断探索。
一方面呼吁回归六方会谈框架，重启无核化进程；另一方面积极探索可行性方案：
双暂停、双轨并行

3) 当前朝核问题与半岛和平构建问题出现的转机，是中国作用的呈现。

三、今后半岛和平构建中的挑战及中国的作用

1、未来无核化进程中需要美国做出重大政治调整，需要朝鲜做出重大安全决断。即美朝是否有诚意解决问题，直接决定着半岛和平机制的构建进程。

- 1) 美国是否有诚意与朝鲜改善关系至关重要，这是无核化进程能否顺利进行的前提；无核化实践中，美国的政策连续性是一个不可预知的风险。
- 2) 朝鲜是否有诚意弃核是关键，直接决定着无核化的成败。
- 3) 韩国的政策连续性非常重要。如果因政府更迭出现对朝政策大幅度调整，将不利于半岛和平构建。是否“容忍”美朝密切接触；另外，不应寻求排除中国这一重要和平力量在外的和平机制构建。
- 4) 在美国的围堵下，中国以及俄罗斯如何看待核问题与对朝鲜关系，也将会对半岛和平构建产生较大影响。虽然中国、俄罗斯拉住朝鲜对抗美国的围堵政策的可能性并不大，但也不能完全排除。
- 5) 推动构建半岛和平过程中，能否妥善管理偶发事件和有效引导舆论也非常重要。

2、中国在未来半岛和平机制构建中的作用

- 1) 中国的原则：只要有利于半岛和平的事情都积极支持。
- 2) 推进无核化方面，在保持必要的国际协调的情况下，抓住来之不易的有利局面，积极发挥建设性作用，劝和促谈，推动无核化进程向前发展。
- 3) 在推动半岛和平构建中，积极发挥议题协调与和平机制实施保障作用。

- 3、需要加强与韩国合作，共同营造有利环境。
 - 1) 启动多层互动机制，保持密切协调
 - 2) 共同努力化解无核化与和平机制构建中的立场差异，并为管控偶发事件风险做好准备。
 - 3) 努力化解中韩之间的安全矛盾。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남방, 신북방 경제협력의 연계 방안

최재덕

(원광대)



제4회 한중관계포럼

중국의 일대일로와 신남방, 신북방 경제협력의 연계방안

최재덕(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

목 차

I. 중국의 일대일로와 문재인 정부의 新북방정책, 新남방정책	2. 新북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와 경제협력 가능분야
1. 중국의 일대일로	3.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구상과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
2. 문재인 정부의 新북방정책	
3. 문재인 정부의 新남방정책	
II. 新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관성	III. 포괄적 韓中관계 발전방향 제시
1. 동북아 안보·경제의 가장 큰 변수 : 북한의 변화	1. 韓中관계의 발전 과정
	2. 안보 및 안전 측면 상호협력 방안

I. 중국의 일대일로와 문재인 정부의 新북방정책, 新남방정책

1. 중국의 일대일로

□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내용

- 2015년 3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통상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 벨트 건설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을 발표함.
-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과거에 존재했던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실크로드를 ‘일대(一帶)’로, 중국-동남아-서남아-유럽-아프리카 ‘일로(一路)’로 잇는 거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기본원칙
“일대일로는 공동적 비즈니스, 공동건설, 공동이익 공유를 원칙으로 함.
- 기본 정신
평화협력과 개방포용, 호학호감(서로 배우고 서로 거울이 돼주는 것), 상호 이익·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실크로드 정신’을 이어 세계화, 자유무역의 확산, 개방·포용을 기본 정신으로 함.
- 중국과 관련된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무역 체계를 이용하는 동시에 전혀 새로운 구역합작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임.

-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중국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잇는 국제경제 합작 루트를 개발하는 것과 해상으로는 항구를 점점으로 공동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운송루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플랫폼을 통해 거대 경제권의 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자원·재화·물류·운송·재정의 흐름을 형성하고자 함.



[지도1 : 중국 육상·해상 실크로드 ‘일대일로’]

- 일대일로는 연선국가들의 국제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통한 상생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확장된 개념

- 중국의 기업과 정부에 걸친 모든 활동을 일대일로라 칭하고 일대일로의 영문 명칭을 OBOR(One Belt One Road)에서 B&R(Belt and Road)로 변경함. One이라는 개념으로 일대일로의 포괄적인 개념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임.
- **6랑6로다국다항(六廊六路多國多港)** : 6대 경제회랑을 중점으로 6개의 인프라(도로·철도·수로·항공로·파이프라인·정보망)를 건설하고 여러 나라의 여러 항구를 개발함. 따라서 일대일로를 기존의 실크로드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일대일로의 확장성**

일대일로 중점 지역 중에서 실크로드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으면 좋겠지만 새로운 경제협력과 이니셔티브의 방향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일대일로임. (거젠승 푸단대 중국역사지리 연구소 석좌교수)



[지도2 : 6대 경제회랑]

□ 6대 경제회랑 구체내역

연번	구분	관련 국	주요 노선	핵심 분야
1	중국-파키스탄	중국, 파키스탄	중국 신장웨이우얼 카스-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카라치-과다르	철도 및 도로, 석유·가스수송관, 광케이블, 산업단지 등
2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다카-중국 쿤밍-인도 콜카타-미얀마	철도·도로
3	중국-몽골-러시아	중국, 몽골, 러시아	중국 징진지-울란바토르-울란두데,모스크바 중국 하얼빈-창춘-선양-만저우리-러시아 치타	고속운송통로
4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중국 렌윈강-정저우-시안-란저우-우루무치, 카자흐스탄-러시아 스몰렌스카야-브란스크-벨라루스 브레스트-바르샤바-베를린-로테르담	국제철도
5	중국-중앙아시아-서부아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 알라산카우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중국	석유·가스 수송관
6	중국-중남반도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난닝-하노이-태국 방콕-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철도·도로

[자료원: 일본 다이와 연구소 2016년 9월]

□ 일대일로 경제회랑별 프로젝트

연번	구분	주요 내용
1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 '플래그십 프로젝트', 투자총액 460억 달러 수준 ○ 2015년 과다르항 경제특구 43년간 운영 관련 각서 체결 ○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웨이우얼까지 3000km 구간에 철도, 도로, 가스수송관을 건설에 합의
2	중국-몽골- 러시아 경제회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러시아 → 중국 천연가스 30년간 수송계약 체결 - 연간 수송량 380억㎥(중국 연간소비량의 20%에 해당), ○ 2015년 러시아 → 중국 천연가스를 연간 300억㎥ 공급계약 체결 ○ 러시아 모스크바-카잔 고속철도 건설프로젝트 중국 기업 입찰(2020년 개업 예정) - 중국 측은 62억 달러 론 공급 예정, 향후 베이징까지 연장할 구상도 있음. ○ 몽골, 러시아 국경에서의 협력협정 체결
3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 개통, 유라시아 대륙 운송 시스템 확립 - 현재 노선은 39개, 13개 노선 신규 건설 중(2016년 말 기준) - 관련지역 지속 확대(중국 내 16개 도시와 유럽 8개국, 12개 이상 도시를 연결)
4	중국- 중앙아시아- 서부아시아 경제회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신 수송관 건설하기로 합의(2013년) ○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중국 기업이 경전철 건설(2018년 완공 예정) ○ 우즈베키스탄의 안그레인-파프 철도 건설, 중국 기업 진행 중 - 도로 중의 캠퍼 터널(19.2km)은 중앙아시아 최장(2016년 2월 개통) - 우즈베키스탄 총 인구의 1/3 에 해당하는 천만 명을 커버 - 향후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중국 연결 구상
5	중국-인도 중남반도 경제회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정비사업 2015년 수주(2019년 완공 예정)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건설허가를 받지 못한 시기도 있었음. - 2016년 7월 건설허가 획득 ○ 라오스 남-북 관통 고속철도 정비사업, 중국 기업에 의해 진행 중(2015년부터) ○ 태국과 방콕에서부터 라오스 국경까지의 고속철도 정비사업 2014년 합의 - 자금 등 조건 불일치로 교섭 결렬 - 2016년 3월 1/3 구간을 태국 측이 건설하기로 합의(그 외 구간은 교섭 중)
6	방글라데시- 중국-인도- 미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중국 윈난성-미얀마 라카이주 차오퉁 수송관 건설 착수 ○ 중국 기업 방글라데시 파도마 교량 건설 사업 시공 중(2014년 착수, 2018년 완공예정) - 2016년 8월 파도마 교량 철도건설 사업도 중국 기업이 수주
7	21세기 해상실크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기업 2014년부터 스리랑카 코론항 정비공사 진행 중 - 일시 중단됐지만 2016년 3월 재개 ○ 중국 기업 스리랑카 한반도타항 2기 건설 완공 예정 ○ 2016년 3월부터 몰디브 국제공항-수도 마레 교량 건설 진행 중(2018년 완공 예정)

[자료원: 일본다이어와 종합연구소 2016년 9월]

□ 일대일로의 로드맵

- 연선국가 65개국, 인구 44억 명 (전 세계의 63%), 경제규모 21조 달러 (전 세계의 29%), 전세계 상품·서비스 무역의 23.9%, 고속철도망 8.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대일로의 재정 확충

-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1,000억 달러
- Silk Road Fund 400 억 달러
- New Development Bank (BRIC's) 1,000억 달러
- China Development Bank(CDB) infrastructure fund 9,000억 달러
- 기타: Eximbank 등 국유은행의 각종 투자자금

□ 외교적 기반

-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 SCO)

2001년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고 중앙아시아 4개국 참여로 만든 다자기구.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식회원국이 되고, 몽골과 이란이 옵저버로 참여.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一帶의 기반으로 삼음.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중국)

중국은 1996년부터 아세안과 밀접한 협력관계 유지.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아세안과 FTA 체결. 공산권국가 견제를 위해 미국과 일본 주도로 만든 ASEAN이 지금은 중국이 ASEAN을 기반으로 一路를 추진하고 있음.

□ 일대일로의 성과 (2017년 기준)

- 물류 협정 체결

- 37개 국가, 유럽 연합, ASEAN등 하운(河運) 협정 체결.
- 31개 항구와 물류 정보 공개 협정 체결

- 육해상 광케이블설치: 일대일로 연선의 12개 국가, 34개 구간 완성.

- 경제교류증가

-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20.1% 증가
- 연선국가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34.4% 증가 등
- 2014~2016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 무역 규모가 3조 달러를 초과
- 중국의 연선국 투자 누계 500억 달러를 넘어섬.

- 중국 기업 20여개국 56개 경제협력구 개발, 일자리 18만개 창출.

- 건설투자

- AIIB는 회원국 84개국(일대일로 연선국가는 42개 국가), 20여개 항목에 37억 달러 투자.
- Silk Road Funds 17개 항목에 70억 달러 투자 확정.

- 2017년 중국 기업의 일대일로 관련 건설은 61개 국가 8157건에 해당하는 총 1260.3억불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함[중국 상무부 통계].

- 교류

- 65개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 53개 국가의 734개 도시와 우호협정 체결

□ 중국의 실질적인 목표

-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확보
 - 과잉생산 해결, 외환보유고(4조 달러에서 3조 1천억 달러)활용, 신규 시장 개척 등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Malacca Dilemma”의 해결
 - 중국 에너지의 80%를 미국이 관리하는 해역을 통해 공급하는 문제
- 미국의 견제 전략에 대한 대응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전략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대응
- 주변국가와의 우호적인 관계 수립
 - 중국은 주변국가와 7천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통한 관계 안정화가 매우 중요함.
- 새로운‘중화질서’의 창출
 - 2050년의 궁극적 목표 달성. 中國夢 실현.

□ 일대일로의 제약요인

- 중국영향력 확대 우려
 -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부설 사업(남태평양 솔로몬제도~ 호주 시드니, 3400km) 호주 정부가 저지.
 - 중국 기업이 전략적으로 주요 통신 인프라인 해저케이블을 시드니까지 연결해 통제하면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 중국의 대규모 투자·차관이 받는 국가들에게 과중한 부채가 됨.
 - 2017년 11월 대표적인 친중 국가 파키스탄에서 14억 달러 규모의 다이메르-바샤담 건설 사업 취소(담 소유권 중국에, 건설인력 1만 7000명 중국인으로 투입 고용효과 없음).
 - 2011년 중국이 미얀마에 36억 달러를 투자해 6000MW급 미트소네담 건설 사업 중단(중국이 담건설비용으로 전력의 90%를 쓴다는 조건, 환경파괴 우려한 주민의 반대로 사업 중단).
- 남중국해 영유권· 인도 국경분쟁
 - 베트남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 남중국해에서의 중미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 (중미 항공모함이 남중국해 최초

동시 진입하여 군사작전, 2018년4월8일)

-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 심화
- 국가 차원의 계획 추진과 경제성 미확보
 - 경제성 없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 화물철도 노선들 운행 시작.
 - 경제성이 없어 운행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 보조금으로 운행 비용 충당.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 국가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물론 러시아까지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거세짐. 일대일로가 새로운 패권의 길이 되고 있다고 경계함.

□ 중국의 일대일로 성공을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받아들이고 반대하지 않으며 중국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와 구상이 제시되어야 함.

2. 문재인 정부의 新북방정책

□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일환으로 제시됨.

-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여 대륙-해양 복합국가로서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지속성장을 견인하여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임.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 목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형성은 ‘평화의 축’으로 역내 다자대화를 주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 조성하고,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것임.
 - 비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평화공동체’로써 평화를 통한 안보와 협력을 통해 전쟁방지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비전임.
 - 주요 내용: ‘동북아 평화 협력’,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으로 구성됨.

□ 신북방정책의 추진배경

동북아·유라시아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및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구축을 위함.

□ 신북방정책의 비전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시대 구현하고 교역·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함.

□ 북방경제위원회 발족

-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의채널 구축과 △정책 기본방향 설정, 정책집행 현황 및 성과 점검△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지자체, 연구기관, 업계, 일반국민 등과 소통채널 마련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기 위함.

□ 북방경제협력의 추진방향

- 9-Bridge 전략 추진:
 -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산업단지의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감.
-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3성 지역
 - 한·러 협력을 통한 극동개발 협력 사업 추진
 - 일대일로 연계사업 및 동북3성에 대해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
 - 한·러 신뢰관계 바탕으로 남·북·러 협력사업 단계적 추진
-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
 -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협력 지속 강화
 - 한국이 강점인 제조업, 농업 및 정보통신 분야로 협력확대
-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 기술협력 강화

□ 제도 및 금융지원

- ‘한-EAEU FTA’ 추진
 - 경제협력에 대한 지속성 있는 제도 마련
 -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 등으로 투자 확대 기반조성
- 금융지원
 - 20억불 규모 한·러 극동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체결(2017.09)
 -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국내 개발금융 지원 강화
 - ADB, AIIB 등 역내외 협의체 기금을 활용한 복합지원(양자·다자간 협력 사업 발굴·지원)

3. 문재인 정부의 新남방정책

□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함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구상의 번영의 축으로 삼음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

- 핵심내용: △한반도 4강 외교에 준하는 아세안 외교의 격상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아세안 기획단 설치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중심의 ‘3P 공동체’

□ 내용

- 목적: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주력 경제무대를 동남아지역으로 확대·활성화하고 외교 다변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임. 대상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임.
- 북방경제협력과 더불어 한국 경제 성장의 후방 추진체로서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을 현실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 기존 아세안 국가간 교류가 상품 중심의 교역을 넘어 교류의 차원을 기술·문화예술·인적교환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공동체’수준으로 격상시킴.
-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도 전략관계에서 ‘특별전략적 관계’로 격상
- 4대 핵심분야 : 교통·에너지·수자원·디지털

[한국의 주요교역국과 한국관계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

한국과 무역 (2016)		한국의 투자 (2016)		외국인 입국 (2016)		한국인 출국 (2016)		해외체류 한국인 (2017)	
국가	무역액 (백만불)	국가	투자액 (백만불)	국적	인원 (천명)	국가	인원 (천명)	국가	인원 (천명)
중국	211,413	미국	12,905	중국	8067	아세안	6397	중국	2542
아세안	118,839	아세안	5136	일본	2297	일본	5090	미국	2492
미국	109,678	중국	3301	아세안	2174	중국	4762	일본	818
일본	71,821	일본	274	미국	866	미국	1973	아세안	316
러시아	13,409	러시아	110	러시아	233	러시아	161	러시아	169

- 아세안은 인구 6억 3000만명, GDP 2조 6000억 달러, 매년 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역동적인 시장임.

- 한국 기업과 산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출해 있고 한류열풍이 강한 지역임.

□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거점국가 : 베트남

- 한국의 4대 교역국 중 하나, 아세안 국가 중 교역액 1위, 투자액 1위,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ODA) 1위 국가. 지난 30년간 16억 5천만 달러의 공적 자금 투입.

II. 新북방정책과 일대일로와의 연관성

1. 동북아 안보·경제의 가장 큰 변수 : 북한의 변화

□ 북한 : 동북아 안보·경제의 위협 요소

- 동북아 안보와 경제협력에 북한이 항상 큰 변수로 작용하여, 북한이 남북러, 남북 중 간의 경제협력, 동북아 에너지 슈퍼그리드, 동북아 안보 공동체·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 등 다국적 협의체 구성에 한계점으로 작용.
 - 북한이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저해요소로 작용함.
- 2017년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 핵완성 선언으로 한반도 긴장 최고조.
 -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가능성 주장, 핵물질 제3국 밀반출 위험, 신뢰 잃은 북한의 핵보유는 국제사회의 큰 위협으로 인식됨.
- 한반도의 긴장과 북미간의 극한 대립은 한반도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의 한반도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북한의 변화

- 변화 추동의 원인

- 병진노선 중 핵완성 선언
완성된 핵무기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려 함.
- UN대북제재 효과
북한 경제가 경제제재에 취약한 구조로 변경
2000년 북한의 무역의존도 20% → 2015년 47.7%로 상승
대북제재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취약성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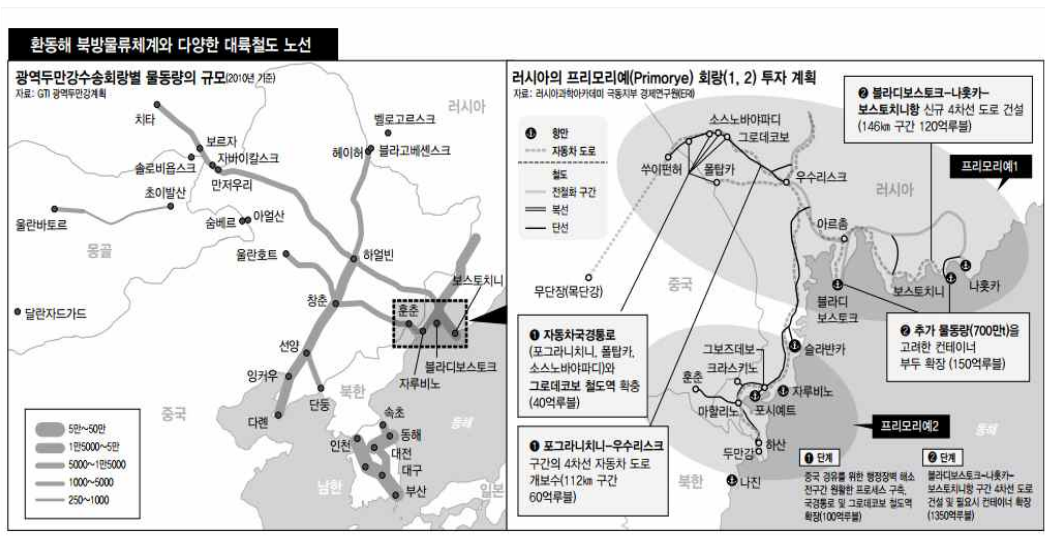
- 미국의 군사적 위협
미국은 북한 핵도발에 대해 일관되게 군사옵션 사용검토 함.
- **남북화해국면**
 -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기원.
 -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 차 김영남과 김여정 등 북측 고위급 인사 방남.
 -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과 남북정상회담 제안.
 - 2018년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대북특사단 방북.
 -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확정
 - 2018년 3월 8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5월중 개최 확정
 -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북중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 재확인
-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경제지도 변화**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UN대북제재의 완화에 따라 동북아의 안보·경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대일로의 동북3성 지역, 북중러 초접경지역개발, 한중·북 경협 등 개발중인 경제특구 정상화·활성화
 - 동북아 에너지·안보·경제 공동체 출현: 동북아 지역 연합의 전지구적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가능(기후변화, 에너지패러다임의 변화,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
 - 철도에너지 물류 네트워크의 획기적인 연결과 동북아·유라시아 거대 경제권 형성
 -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선순환 작용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 중국의 중몽러 회랑과 남북한 경제권 연결로 발전지속성과 경제성 확보.

2. 新북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와 경제협력 가능분야

- **공통의 지정학적 공간**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북방정책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의 남북 중 또는 한중 경제협력, 중앙아시아와의 경제교류,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환동해권을 이용한 물류네트워크 형성 등 큰 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북방정책은 그 궤를 같이 함.
- **사업내용의 상호보완성**
일대일로와 한국의 북방정책은 사업내용이 상충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며 한·중이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중몽리 경제회랑 두만강교통회랑과 한반도의 연결

- 중몽리 경제회랑은 13개의 교통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함.
그중 한반도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두만강 교통회랑이 있음.
- 몽골에서 중국의 창춘과 훈춘을 거쳐 두만강을 따라 동해로 빠지는 노선으로 두만강개발계획(GTI)와 연동되고 육로로 대륙과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임.
- 경쟁 노선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노선과 몽골의 최단 출해(出海) 루트인 라오닝과 진저우임.
- 시너지효과
 - 몽골·극동러시아 수요만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효용성 크지 않음. 몽골 300만, 극동 러시아 640만 보다 북한 2500만, 남한 5000만의 큰 산업배후와 두만강교통회랑을 연결함으로써 한반도가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에 충분한 수요와 산업배후지가 될 것임.
 - 중국은 투자효용성을 몇 배로 끌어올리고 한국과의 동반투자를 통해 자금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환동해권 - 물류네트워크

- 중국은 동북아시대를 대비하여 낡은 공업시설들로 낙후된 동북 3성 발전을 적극 추진
- 동해 접근 경로가 없어 출해(出海)를 위해 북한의 나진항을 장기 임대했지만 남북 관계 경색으로 여전히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다롄항으로 물류를 이동시킴.
-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개발·개방 선도구의 인프라 건설 완성단계임.

개방창구인 훈춘 지역 국제물류단지 건설 중이고 나진항 연계 개발도 진행 중임.

- 창지투 개발지역과 나진항이 연결되면 창지투 지역의 물류를 나진항을 통해 동해를 거쳐 중국 남쪽으로 이동하는 중외중(중국-외국-중국) 또는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중외외(중국-외국-외국) 등 동해를 통한 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이룰 수 있음.
- 동북 변방의 거점도시, 창구도시로 훈춘을 설정하여 국제물류허브로 개발하고, 훈춘과 나진시를 연결하여 종합교통운송 조건을 완비. 제 2의 심천으로 개발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반드시 필요함.
- 동북3성 극동지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新동방정책과의 결합
중국과 러시아는 중몽러 경제회랑 합의, 중국의 투먼, 쑤이펀허 회랑과 러시아의 프리모리에 1,2 회랑의 연결 추진(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선도개발구역 설치). 두만강 3각 지대를 중심으로 환동해 항만과 대륙철도를 결합하는 복합물류시스템을 본격화 함.
· 지린성- 나진항, 자루비노항으로 출구 확보.
· 쑤이펀허 회랑은 러시아의 프리모리에 1에 의해 블라디보스톡 주요항으로 연결.
· 투먼 회랑은 러시아 프리모리에 2에 의해 두만강 인근 북중 국경에 위치한 러시아의 포시예트, 자루비노항과 연결 후, 나진-하산 철도와 연결하여 국제수송로에 접속.
- 대북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부산-나진항-시베리아횡단열차로 이어지는 환동해 물류네트워크 활성화 기대.



[동북 3성과 환동해 물류네트워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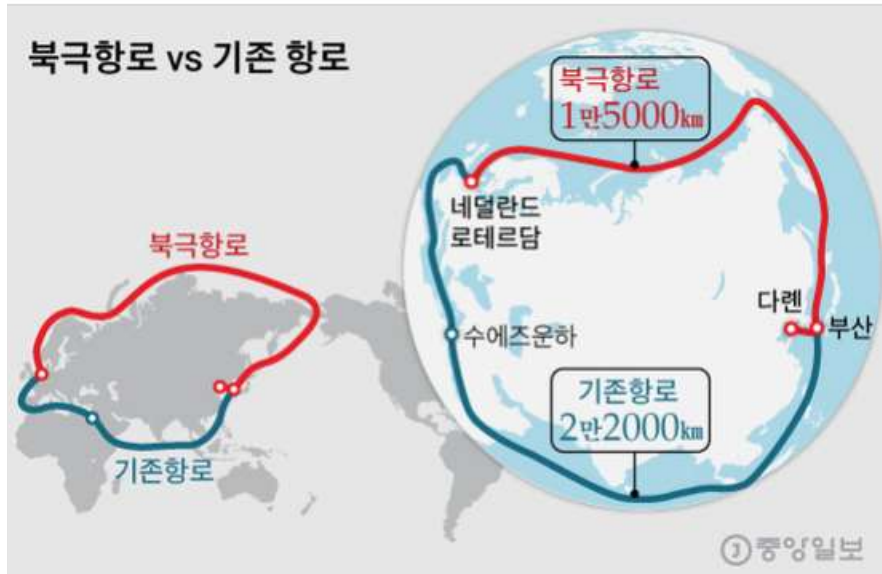
□ 철도



- 북방경제협력 중 철도분야에서 한반도 종단열차(TKR)와 시베리아 횡단열차(TSR)의 연결은 향후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와 연결.
- 동북아시아·중앙아시아·유럽이 철도로 연결되고 물류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중국과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중국은 장춘-훈춘 고속철 연결에 이어 서쪽으로 창춘-울란호트로 고속철 사업 확대, 동쪽으로는 훈춘-블라디보스톡 고속철 건설을 러시아와 논의. 단선적이고 대륙 횡단철도인 시베리아 횡단철도와는 달리 육·해상을 연결하는 중몽북러의 대통로를 구상함.

□ 북극항로

-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로 운송시간단축, 연료비 절감이 가능함.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운하 루트 보다 거리가 짧지만(수에즈 운하 22,000km, 40일/ 북극항로 15,000km, 30일) 현재 7월에서 11월까지 5개월만 운송 가능함. 2030년 정도부터 연중운송이 가능할 것임.
- 극동투자수출기구와 일본의 선사MOL의 협력으로 러·일 경제 협력과 북극항로 발전이 강화될 것. 유럽과 아시아간의 글로벌 수송로로서의 북극항로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임(갈루쉬카 러시아극동개발부 장관).



[기존항로와 북극항로 비교]

- 중국의 빙상실크로드 구상: 중국은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이어 제 3의 실크로드인 빙상실크로드를 구상하고 있음. 세계 최초 북극백서 발간.
- 에너지의 보고인 북극해 연안 러시아의 야말반도 천연액화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실크로드펀드 9.9%, 국영기업 CNPC 20% 지분으로 야말프로젝트에 출자)하여 2017년 12월부터 생산에 들어간 LNG가 2018년 3월 북극항로로 중국에 운송.
- 현재 유럽~아시아간 수송량은 전체 수송량의 3%정도로, 정기화물 수요가 없고, 러시아 야말반도 사베타(Sabetta)항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고 액체화물이 94.5% 증가(4508톤)하여 당분간 러시아 북극자원 수송에 이용될 전망.
- 2015년 CJ대한통운이 우리나라 최초로 북극항로 이용 상업운항 개시. 현재 우리나라 기업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음.
- 2030년 북극항로 상시 운행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대한해협-동해- 러시아 연안-북극항로’를 이용한 물류 이동이 가능하며, 우리나라 환동해권 항만 도시와 한·중·일·러의 북극개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한·중·일 해저케이블- 에너지 슈퍼 그리드

- 세계는 화석 연료의 마지막 단계인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데 주력함.

-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전지구적 공동대응책이 마련되고, 북유럽 슈퍼그리드(Nordic-EU SuperGrid), 남유럽의 데저텍 프로젝트 (Desertec Project), 북아프리카-중동 슈퍼그리드(Sud EU-Magaherb SuperGrid) 등 대륙 단위의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슈퍼그리드가 형성됨.
- 동북아에서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몽골의 전력망을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프로젝트가 진행중 임. 러시아와 몽골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 중국 일본에 공급하는 국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 안보 동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제 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을 제시하면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도 포함한다고 밝힘.
- 북방경제협력 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는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한중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 해 2022부터 부분 착공할 계획임.
 - 몽골 고비사막에서 전력 생산, 1천 300km떨어진 중국 톈진과 웨이하이까지 중국 내 자체 전력망이용, 웨이하이부터 인천까지 366km(수심 72m) 해저 케이블로 연결. 인천~남해를 거쳐 460km(수심200m) 떨어진 일본 북부 지역까지 전달.
 - 중국~인천 라인 전력 규모 2GW, 하루 21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임.
-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남북러 에너지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송전선, PNG 파이프라인, 송유선이 한반도를 관통하게 되면 동북아 슈퍼그리드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임.



[동북아슈퍼그리드 구상]

□ 그 외의 협력 가능 분야

- 중국과 한국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 허베이성 정부와 한국 충청남도 본청, 경기도 본청 자매교류
- 허베이성의 많은 시와 한국 시, 군, 구 단위의 지자체 자매·우호 관계
- 한중 기업의 아시아 등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인프라 개발 공동참여.
- 한중 간 제품 차별화를 통한 분업 구조 형성
- AIIB를 통한 제 3국 인프라 시장 공동진출 모델 개발
- 일대일로로 한중 산업물류단지 조성
- 양국 및 일대일로 역내 국가의 원활한 무역을 위한 장벽 제거 및 one-stop 통관협력 강화

3.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구상과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



[남북협력 로드맵 - 신경제지도구상]

□ 신경제지도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로드맵

- 동해권, 서해권, 비무장지대권(DMZ)의 3개 벨트를 구축해 경제통일 기반으로 삼고,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 진행할 수 있는 과제를 진행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될 때 북한을 포함시키는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임.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 모델이며 신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남북 상생의 길을 모색을 통하여 신경제지도구상을 실현하는 것임.

□ 3개의 벨트

- 동해권(에너지 자원 벨트) : 금강산과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로 연결. 북방경제와 연결하여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도약.
- 서해권(산업·물류·교통벨트):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
- 비무장지대권 (DMZ환경·관광벨트): 설악산과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
- 추가적으로 북한과 협의하여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통일경제특구 지정. 2007년 10.4 정상선언에 담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도 재추진 계획 있음.

□ 신경제지도구상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은 같은 맥락임.

-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은 서남방을 개발한다는 계획임.
- 따라서,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II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남북 합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함.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해 북한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와 훈춘 물류 단지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가 고려됨. 환황해경제벨트 실현을 위해 개성공단 재개도 가능성 높음.

□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의 위해 주변국의 협력이 중요함.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경제특구 공동투자·공동개발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남북 중 경제협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북한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해지면, 지린성의 창지투 개발 계획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인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두만강 지역은 북중러의 경제협력은 물론, 나진·선봉 지역을 사이에 두고 북중, 북러, 중러 간 경쟁적 협력관계로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익을 공유하며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임.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은 혁신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세계 경제

의 흐름을 주도할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공동의 경제 영토를 공유하고 협력 발전하면서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에너지, 물류, 환경, 교통, 무역, 국가 간 갈등 조정을 이루어 갈 것이다.

Ⅲ. 포괄적 韓中관계 발전방향 제시

1. 韓中관계의 발전 과정

▶ 한중수교와 한중교류

- 한중간 92년 8월 24일 한중 선린우호협력관계에 합의하면서 한중교류는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교환
 -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 등 6개항임.
- 양국 교역 규모
 - 한중 수교 당시인 1992년 63억 8천만 달러에서 20년 후인 2012년에는 2206억 2000만 달러로 35배가량 증가함.
 - 한류·漢風 등 사회적 문화적 교류도 급격히 증가함.
 - 한중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성,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전략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옴.

[한국의 주요교역국과 한국관계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

한국과 무역 (2016)		한국의 투자 (2016)		외국인 입국 (2016)		한국인 출국 (2016)		해외체류 한국인 (2017)	
국가	무역액 (백만불)	국가	투자액 (백만불)	국적	인원 (천명)	국가	인원 (천명)	국가	인원 (천명)
중국	211,413	미국	12,905	중국	8067	아세안	6397	중국	2542
아세안	118,839	아세안	5136	일본	2297	일본	5090	미국	2492
미국	109,678	중국	3301	아세안	2174	중국	4762	일본	818
일본	71,821	일본	274	미국	866	미국	1973	아세안	316
러시아	13,409	러시아	110	러시아	233	러시아	161	러시아	169

▶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

- 양국은 2008년 5월 한중관계를 전면적 동반자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

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킴.

- 중국의 외교 관계 5단계(우호, 선린우호, 동반자, 전통적 우호 협력, 혈맹) 중 한국과 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중국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관계를 지칭함.
- 전통우호협력관계나 혈맹관계는 역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동반자 관계(협력동반자, 전면적 협력 동반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분류됨) 중 최고 단계의 관계를 유지함.
- 양국은 정치안보·경제교류의 확대,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적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양국 간 상호 신뢰를 쌓아옴.

▶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됨.

- 고주파 의료기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 2016년 1월 1일, 5,779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10년 내에 5,846개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 철폐.
- 20년차인 2034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 1,272개 제품에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
- 수입액 기준, 발표 20년 후 중국은 對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 달러), 한국은 대 중국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됨.

▶ 사드(THAAD)배치로 인한 어려움과 양국관계 정상화

- 2017년 4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서 한중관계는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
- 2017년 10월 31일. 사드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발표문과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으로 양국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함.
- 2018년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방한한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절차 진행,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계 등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 전함.
- 한중 관계가 어려움을 딛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2. 안보 및 안전 측면 상호협력 방안

□ 군사적 측면에서의 상호협력 증진 방안

- 양국의 교류 협력은 초기에 경제 분야에 집중. 서서히 문화·정치·군사협력 분야로 확대되어 옴.
- 한국은 1993년 주중 한국 무관부를 개설하였고, 중국은 1994년 주한 중국 무관부를 개설하여 양국 군사관계가 시작됨.
- 군 지도급 인사교류는 1999년과 2000년에 걸친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인사교류의 폭이 점차 확대됨.
- **한중 군사협력의 제한점**
양국은 역사적인 배경과 남북분단 현실에서의 안보 전략·안보 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차이임. 실질적으로 군사협력이 제한적.

□ 군사협력의 필요성

-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신뢰구축을 위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한·중간 실용적인 군사협력을 체계화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아·태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한중 양국이 군사협력·공조가 필요함.
 - 둘째, 한국 정부는 對중국 실용외교와 실리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전략대화체제 구축·‘전쟁 이외의 군사활동 (MOOTW: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에 동참하여 양국의 군사적 신뢰를 점진적으로 향상 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한국과 중국은 근접 국가로써 상호 군사적 충돌과 대립이 형성되지 않도록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6.25 전쟁 중국군 유해 인도: 군사적·정치적 협력을 위한 노력

- 한중 양국은 2013년 중국군 유해를 매년 중국의 청명절(4월 5일) 이전에 송환기로 합의한 바
- 2014년 3월 28일(1차) 437구, 2015년 3월 20일(2차) 68구, 2016년 3월 31일(3차) 36구, 2017년 3월 22일(4차) 28구 등 매년 중국군 유해를 송환함.
- 2018년 3월 28일 6.25전쟁 중국군 유해 20구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송환함. 이번 ‘유해 인도식’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가오샤오빙 중국 민정부 부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
- 송영무 장관이 직접 유해 인도식을 주관하여 사드(THAAD) 배치로 소원해진 한중 군사관계 복원과 군사 교류협력 확대 의지를 중국에 전달함.

□ 한중 군사당국 대화 채널

사드 배치 문제로 단절되었던 한중 군사당국 대화를 복원하고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될 것임.

- *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 1995년 첫 회의 시작으로 거의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열림. 한국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
- * **한중 국방전략대화:** 고위급 대화 채널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차례 열림.
- * **한국 국방부 장관과 중국 국방부장의 회담 :** 최고위급 채널로 2017년 10월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개최 됨. 2015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에 열림.

□ 한중 군사협력에 대한 제안

-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지역안보에 있어 공동의 목표를 가짐.
- 양국이 대화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통해 각종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 한중관계를 폭넓고 긴밀하게 발전시켜야 함.
- 상호 이해와 전략적 신뢰를 증진하고 상호 원원과 공동발전의 정신에 기초하여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해야 함.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중 경제의 상호 의존, 지역협력의 긴밀한 협조, 지구적 문제에 대한 공동 관심사 등의 측면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보다 심화되고 확대될 것임.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 북방정책의 연관성

-중국 안보적·경제실익적인 측면에서 -

(동북아 차원의 에너지와 물류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중국의 안보적 이익측면에서

- 중국은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저지하고, 러시아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를 틈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넓혀왔음.
- 중국은 한국과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 체제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중국에 유리한 안보상황을 조성하려 한다.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균형정책을 취해 한반도에서 최대한 이익을 보려 함.
-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나 변화가 중국의 안보와 직결되므로 중국은 변함없이 북한을 중국 안보의 완충지대로 생각함.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UN대북제재로 소원해진 두 나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 복원에 힘썼다.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기 위한 관계 복원이 라도두 나라는 안보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이 분명함.
-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장악을 위한 해군력 증강·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아시아 재균형 정책·항해의 자유를 내세운 미국이 동아시아 곳곳에서 정치적·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음.

중국의 경제실익적 측면에서

-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화라는 중국몽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중국의 잉여생산품의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함임.
-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주변 정세의 평화안전구축,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협력 체계 구축,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음.
- 북핵으로 한반도의 긴장으로 고조시키는 북한은 남북러, 남북중 경제협력, 동북아 에너지 슈퍼그리드·동북아 안보공동체·동북아 경제공동체 등 다국적 협의체 구성의 한계점으로 작용해왔음.
- **한반도의 평화는 중국의 꿈 실현에 중요하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의 남북중·한중 경제협력, 중앙아시아와의 경제교류,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환동해권을 이용한 물류네트워크 형성 등 큰 틀에서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의 방향이 같거나 상호보완적이며 한중이 함께 협력할 때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한반도 평화정착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접경지 경제특구를 활성화하고 북중·남북중의 경제협력으로 상호이익을 실현하고 일대일로의 중몽리 회랑과 한반도 경제권이 연결되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임.
- 결과적으로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의 상호협력과 이익 공유는 한반도 번영과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임!

◆ 한중관계연구원 소개 ◆

■ 설립목적 및 취지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 한중관계연구원 연혁 (2013~현재)

■ 2013년

원광대학교 한중관계 브리핑 프레시안 연재 (2013.9.12.~)

원광대학교 공자학원 설립 추진 (2013.10.01.)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

- 일시: 2013년 10월 17일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 주제: 中國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제 8회 국제환황해연구포럼 참가

- 일시: 2013년 10월 26일
- 장소: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 주제: 한·중 문화 교류 활성화
- 주최: 군산대학교·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중국 천진사회과학원

한중정치외교연구소 추계 공동학술대회

- 일시: 2013년 11월 8일
- 장소: 전북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주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통일과 평화 그리고 인류사회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소통
- 주최: (사)한국평화연구학회·한국민족통일학회·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신문대 국제다문화연구원

전남대 BK21플러스 글로벌디아스포라 창의인재양성팀

- 후원: 원광대학교·(사)세계평화교수협의회

계명대학교와 학술교류

- 일시: 2013년 11월 20일
- 장소: 대구 계명대학교
- 주제: 한국 속의 중국, 중국 속의 한국

제 1회 한중통상산업논단 국제학술세미나

- 일시: 2013년 11월 21일
- 장소: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 2층 회의실
- 주제: 한중 통상산업의 현황과 미래, 한중 경제협력과 공동발전 방향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통상산업연구소
- 후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중국 통상전문인력사업단

한중법률연구소 학술세미나

- 일시: 2013년 12월 06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한중관계에 있어서 중국법의 최신동향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한중역사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

- 일시: 2013년 12월 12일
- 장소: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 2층 제1회의실
- 주제: 동북아 3국민의 이주와 정착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
- 후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 2014년

『G2시대,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단행본 발간 (2014.2.10.)

한중정치외교연구소 3월 시민강좌

- 일시: 2014년 3월 3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중국의 일국양제 및 미국의 연방제

한중관계연구원 뉴스레터 발송 (2014.4.1.~)

한중정치외교연구소 및 한국동북아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

- 일시: 2014년 5월 23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중국의 급부상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한국동북아학회

한중역사문화연구소-절강공상(浙江工商)대학 동아연구원 한국학연구소 MOU체결 (2014.5.26.)

한중통상산업연구소 중국전문가 초청 강연회

- 일시: 2014년 5월 29일
- 주제: 한중 관계에 있어 중국 통상산업의 최신 동향

한중관계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

- 일시: 2014년 6월 2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현장에서 본 한중관계

한중정치외교연구소 6월 시민강좌

- 일시: 2014년 6월 2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선택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남이랑북이랑

제2회 한중통상산업논단 학술세미나

- 일시: 2014년 6월 12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한·중 FTA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통상산업연구소

한중통상산업연구소 전문가 초청 간담회

- 일시: 2014년 7월 4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중국 환경시장 진출 전략

한중정치외교연구소 7월 시민강좌

- 일시: 2014년 7월 7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시진핑 방한과 우리의 선택

한중관계연구원 전문가 초청 특강

- 일시: 2014년 7월 23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건설과 한중관계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① 『G2시대의 한중관계』 칼럼집 발간 (2014.8.)

한중법률연구소 전문가 워크숍

- 일시: 2014년 8월 1일
- 장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별관 회의실
- 주제: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시범지역 운용과 법제 지원 방안

한중정치외교연구소 9월 시민강좌

- 일시: 2014년 9월 1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사대주의는 굴욕외교였는가, 실리외교였는가?

원광대학교 공자학원 개원 (2014.9.24.)

원광대·계명대 학술교류 세미나

- 일시: 2014년 10월 2일
- 장소: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제: 한중 양국의 균형발전과 한중관계
- 주최: 원광대학교·계명대학교

제58회 전북사학회 학술대회

- 일시: 2014년 10월 4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관: 전북사학회·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

한중정치외교연구소 10월 시민강좌

- 일시: 2014년 10월 6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중국 변수

제9회 한·중 환황 발해 원광포럼

- 일시: 2014년 10월 8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첨단스튜디오
- 주제: 환황발해의 불안 요인과 협력방안

제2회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국제학술회의

- 일시: 2014년 10월 28일
- 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제: 중미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한중정치외교연구소 11월 시민강좌

- 일시: 2014년 11월 3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전시 작전지휘권 이양 연기와 한중관계

한중법률연구소 전문가 초청 강연회

- 일시: 2014년 11월 19일
- 장소: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2호
- 주제: 중국읽기

한중정치외교연구소 12월 시민강좌

- 일시: 2014년 12월 1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인종·민족 문제와 한중관계

한중법률연구소 제4차 학술세미나

- 일시: 2014년 12월 4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2014년 중국법의 최신동향과 주요쟁점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

한중역사문화연구소 전문가 초청 강연회

- 일시: 2014년 12월 9일
- 장소: 원광대학교 자연대학 201강의실
- 주제: 미국의 썬크탱크 하버드의 중국연구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

공자학원 중국호남사범대 공동연구 발표

- 일시: 2014년 12월 16일
- 장소: 중국 湖南省 长沙 호남사범대
- 주제: 환경이 한중 정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5년

한중역사문화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 일시: 2015년 1월 5일~6일
- 장소: 중국 길림성 길림시 북화대학
- 주제: 제1회 동아시아 역사와 현실문제
- 공동주최: 중국 북화대학 동아시아 역사와 문헌 연구센터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

한중정치외교연구소 1월 시민강좌

- 일시: 2015년 1월 5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2015년 한중관계 및 북중관계 전망

제1회 중국 식품산업 바로알기 세미나 참가

- 일시: 2015년 2월 3일
- 장소: 전북 익산 KTX 선상역사 4층 홍보관
- 주제: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중국 식품산업 바로알기’ 세미나
- 주최: 원광대학교·원광대학교 LINC사업단
- 후원: 전라북도·익산시·순창군

한중정치외교연구소 2월 시민강좌

- 일시: 2015년 2월 9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미국에서 본 중미관계와 한중관계

『중미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단행본 발간 (2015.3.9.)

한중관계연구원 학술지 《韓中關係研究》 제1권 창간 (2015.3.)

한중관계연구원 3월 시민강좌

- 일시: 2015년 3월 2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보는 한중관계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② 『한중관계의 신장타이(新常态)』 출판 (2015.4.)

한중관계연구원 4월 시민강좌

- 일시: 2015년 4월 6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AIIB 추진과 한국의 선택

한중관계연구원 전문가초청 특강

- 일시: 2015년 6월 4일
- 장소: 원광대학교 학생지원관 6층 한중관계연구원 공동회의실
- 주제: 인문사회 연구에 있어 빅데이터의 활용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5년 공동학술세미나

- 일시: 2015년 6월 24일
- 장소: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제: 일대일로와 새만금개발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 후원: 새만금개발청·전라북도

한중관계연구원-학술교육원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업무협정 체결 (2015.7.28.)

한중관계연구원 학술지 《韓中關係研究》 제1권 2호 발간 (2015.8.)

제10회 국제환황해연구포럼

- 일시: 2015년 10월 6일~7일

- 장소: Best Western 군산호텔·군산대학교
- 주제: 환황해권역 경제 문화 상생 방안 - 새만금지역 한·중·일 동북아시아 협력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중국 천진사회과학원·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한중관계 브리핑 ③ 『짚·박 2.5년, 변하는 한중관계... 변하지 않는 한중관계』 출판 (2015.9.)

한중관계연구원·산동대학 중한관계연구센터 MOU체결 (2015.10.22.)

제3회 한중관계연구원 국제학술대회

- 일시: 2015년 11월 20일
- 장소: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
- 주제: 한중관계와 지역발전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원광대 공자학원·중국지역학회
- 후원: 전라북도

제1회 한중청년포럼 참가

- 일시: 2015년 12월 11일~13일
- 장소: 중국 베이징
- 주제: 일대일로 배경 하의 한중관계
- 주최: 중국산동대·중국유학생협회 한국분회
- 후원: 중국 외교부·신화통신

한중역사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

- 일시: 2015년 12월 17일
- 장소: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제: 제3회 동아시아 역사와 현실문제
- 주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중국 북화대학 동아시아연구센터

■ 2016년

한중관계연구원 『韩中关系简报』 매거진 발간 (2016.2.)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④ 『한중관계의 꿈과 과제』 출판 (2016.3.)

memo



원광대학교
圆光大学

memo



원광대학교
圆光大学

memo



원광대학교
圆光大学

memo



원광대학교
圆光大学

memo



원광대학교
圆光大学